

장 卷三
長 恨 夢 下 編



Inches 1 2 3 4 5 6 7 8
cm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Kodak Color Control Patches
Blue Cyan Green Yellow Red Magenta White 3/Color Black
© Kodak, 2007 TM: Kodak

登錄番	3200
類番	
書番	

장한몽 하권 (長恨夢 下卷)

데일장 忠告 (충고)

봄비가 비로 소지니 여간 후푸른 입시와 붉은 색은 고은 빛이 더우 선연하야 소쇄한 경치가 눈아리가 득하고 첨하우으로 보이는 검은 구름은 무얼 사사 바람을 좇쳐 동북으로 비를 모라 간후 온화한 날 빛은 퇴사마루에 거러안자 잇는 스름의 등에 빛초여사듯한 기운이 전신에 퍼지는 더날아가는 구름을 눈이 부신 것 같치 유연이 처여다 보고 잇던 리 슈일은 다시 고기를 드리우고 쓸압해 열어진 색 입을 한층 나려다 보는데 그 가슴에는 무슴싱각이 응울흔 지 몸을 섹리치고 다시 일어선다. 김정연의 부사 두스름은 임의 화지로 인하야 스멸하고 그 자리에 슈일은 다시 조고마흔 집을 건축하고 리슈일이라 하는 문피를 붙치였고 리슈일은 식점의 주인이 되엿더라. 김도식은 원리부터 저귀의 집저산을 불의에 물건이라 하야 저귀는 그저산에 조금도 손을 다이지 안이하고 모다 슈일에 게맞기여 정당흔 죽업에 저본을 지으라 하야 슈일은 노하야 고품 온당흔 스름이 되기를 바랐더라 그러나 슈일은 전일 김정연의 죽업을 못치지 안이하고 더욱 사사 심흔 수단으로 영업하야 서문밖 동근방에 서는 리슈일의 일흔이 높חת더라. 슈일은 비인 집에 다만 로파흔 사름만 두고 조석을 지어

장한몽 하권

登錄番	3200
類番	
書番	

서먹으며 저기는 호을노 들어오나 나아가나 일기려관보다 조곰다름이없다
 나아가면 종일도록다니다가 허가 겨우러셔야 비로소 집을 초저도라오는 수
 일은 항상 나의집이로되 적적히 비인방안에 발을 드러노으면 가령의쾌락은
 저미는업고 다만 침상을향하여 벗을삼고 서로 티향야말하는사름은 노파하나
 뿐이라. 수일은 바야흐로 도라와서 적적히비인방안에 번듯시 드러누어 종일
 피곤함을 쉬이고잇을새에 집에 잇는노파는 남포에불을혀서 들고들어오며
 「낮이 험신지니여셔 서너갓점쯤 되었을새에 었던손님이 오셨셔요. 너일도
 그새쯤하여셔 다시 오겟스니 어디가지말고 꼭 집에서 기다리고 계시라고 할
 심디다. 합짜가 무엇이냐고 물어도 「답은하시지안코 단지전에 학교에서갓치
 공부하던 친구라고만 말씀을 하시셔요」 「학교에 친구……」 수일은 졸연히
 었던 사름인지 생각이 나지안이하는모양이라 「그런데 모양은 었던하드란
 말인가」 「글세을시다. 나히는 삼십이나넘어보이고 수염은 턱셔부리로 나구요
 키는 크고 얼굴은 우락부락하여셔 보기도 었지무셔운지 모로겟셔요」 수일은
 티답지안이하고 자로 고기만 쉼덱이며 초저왔던손이 었던사름인지 서다른
 모양갓치 이윽도록 말이없다 「그리고 모양반은 보기에도 었지 감이스나온지
 모로겟셔요」 「너일세시나 네시쯤하여셔 또 오겟다고……」 「네 너일또을

러이니 꼭 기다리시라구요. 그런티 모양반은 었던하심량반인지 의복도 루추
 하고 사름도 었지감이스나온지요」 「그러나 무슨볼일이 잇다고 하든가」 「그
 말은도모지안이하셔요. 맛나야 할말이 잇다고 하심되다」 「그러면 너일오거든
 맛나보지」 노파는 문을 열고 밧그로 나아가려하다가 다시 주춤하고 스면서
 「그리고 조곰있다가 최만경씨도 왔다가셨셔요. 반찬하여잡수시라고 민어자반
 열마리하고 전복이십기를 들너가지고 오셨셔요. 이할미도 과거를각금 스다쥬
 시니셔 었지잘먹는지모르겟습니다」 수일은 그말을듯고 불쾌흔괴석이 움작이
 며 티답이없다 「그리고 최만경씨도 너일 다섯시새에 오겟다하시셔요. 꼭 뵈옵고
 의론할말이잇스니. 그러케 열쥬라고하시셔요」 학교의 친구라말하고 초저오던사
 림은 과연 고잇흔날오후에 약속과들님이엿셔 초저왔더라 수일은 빅락관의 초
 저음을 피이히역이엿스며 또는 반가히 생각하였더라 빅락관은 거만히 자리
 우에안저 수일을바라보며 수염만 두손으로 쓰다듬으며 여러가지로 회구하는
 마음이싱기느드시 허웃고 「벌셔 우리가 지니던일이 옛적이되었네그려. 그려
 하니셔 우리가맛나면 서로할말은 무궁무진하지만은 첫저로 저네다려 무려볼
 것은 오날날서지라도 저네가 나를 그리도 친구로알고 잇나. 또는 아조. 이셔
 바리고 친구안이하는가」 수일은 티답이 없시고기만 속이고 우뚝히 안져

있다 「싱각하여 불것도 업네 친구로 아적사지도 알것갓호면 아노라고 말을할것
이오 그러치안이호면 나는 친구로 아지안이호노라고 스나희답게 뒤답을호
게」 「이전에는 친구로지너였지」 호며 수일의말소리는 간신히 입밖게 나온다
「응 그리……」 「그러치 지금은 친구라고 말할수업지」 「그것은 엇지호여서
그러호가」 「그후로 오류년동안은 도모지호변도 만나보지를못호고 지너였스
니사 지금이야 엇지 친구라고 말할수잇나」 「무엇이야 지금은 친구라고 말할
수업서…… 이전에는 즈네가 나를 무삼친구로 알고잇섯던가」 수일은 빅락관
의이말을듯고 의아히 녀이논모양이라 「안이그러호가 즈네도 싱각하여보게
너몸에 당호장리의수업을 정호는씨에 세상의유지호인물이 될는지 또는 돈만
목력호는 빗노이를호는지 두가지 중에호가지지를 결정호씨에 명석이친구라호
면서 나다려는 무삼의론 호마디를 호일이잇섯나 그썸안이라 말호마디업시
부지거쳐를호니 어디서친호친구간에 그러케일을호는법이 잇는가」 수일은 오
히려 뒤답지 안이호다 「즈네가 마음에 밋잇던 정든너즈는 즈네를 바렷슬지
언정 즈네친구되는 이빅락관은 결단코 즈네를 저바리지안이호였네그러호
데 즈네는엇지호여서 나를저바리는가 즈네는 아모리와코치 나갓호 친구라
도 헌신코치 너여바리지만은 나는 그러치못호여서 즈네를 이렷게 초즈온길

일세。 그러나 즈네는 너가 즈네를 바리고안이바리는것을 조곰이라도 마음에
무섭게 알바는안이갓지만은 나는 너의정리로 영인부아언정 무아부인으로 좌
우간호변은 너가 초즈왔네。 지금 즈네말이 인제는 친구로말호수업다호니 즈
네는 나코호사름호고 친호기를 원호지안이호는 모양일세그러 즈네의마음이
그러호지경이면 나역시 갓호여 즈네를 친코즈안이호고 오날브러라도 스나희
답게 리수일외와 빅락관두사름은 전일정분을 싣어바리고 그만두세」 수일은
고기를술이고 말이업다 「그러나 오날까지 정다운친구로지너던 즈네를 바릴
것호호면 지금이 영별이니사 마지막으로 즈네다려 말호마디 물어보지안이호
수가업네」 여보게수일이 즈네는 무삼사름으로 돈을 모으려고 이를쓰는가 크
게밋고 크게바라고 크게질거위호던 일키너즈를 남에게세앗기고 그분푸리를
호꽃이업서서 돈에 눈이뜨엇드란말인가 돈을 모으려호는 마음도 조은일이야
그러치만은 돈을엇기위호여서 부정호고 악독호행위를 호필요가무엇인가 즈
네도 이세상에서 남에게 업슴을밧으며 남에게 욕을당호고 무한호 고동을밧
으면서 그싱각을호드리도 남에게 칭찬은 듯지못호지언딩 남에게 욕을스고
남을못살게굴사름이야 무엇인가 그썸이안이라 즈네의 돈을니는방법을말호면
스름이 돈을호여 곤난호고 답답호씨에 조호나으로 싣여주고 나중에는 그스

를 못 견디게 조르다가 피를 글스고 고기를 씹는 영업일세 그려 비유하여 말하면 강도의 수단을 써서 남의 돈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이 업지 그런데 즈네는 그것으로 오날날 사지 마음을 위로하고 있다 하는 말인가. 아모리 돈이라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데일가는 권력이 있다 하지만은 명석이 스름이라 하는 것이 악한 일을 하면서 호시각 동안이라도 마음을 편안히 하고 지닐 수가 업는 일일세 그려 처만 즈네는 의연히 절겁게 만 알고 있나 빗을 조르러 가며 가산 집행을 하는 것이 즈네는 샷듯 호호 봄날에 뿔구경이나 하는 듯인가 수일은 더욱 더 답을 하지 못하고 묵묵히 안자 있다 자 서서 아저 못 하지만은 멧히 동안을 두고 설마 그려 호마 음은 업섯 겠지 즈네 얼골을 즈네가 좀 드러다 보게 얼골이 죄인이나 다름이 업네 감옥에 들어 잇는 중역군이 나 맞찬 가지야 알아 보지 못하도록 파리호수일의 얼골을 들여다 보며 빅락관은 눈물을 먹음는다 수일이 엇지 하여서 너가 이리케 눈물을 흘리는지 아는가 오날날 리수일이로는 아마 아저 못하리 아모리 돈을 만이 늘려서 큰 부자가 된다 하여도 이리가 지고는 도져히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리 병이 잇슬 때에 약은 먹지 안이 하고 독약만 먹으면 그 병이 나을 줄도 아는가 이와 처치 즈네는 약 먹을 줄을 아저 못 하는 것과 맞찬가 절세 전일 빅락관의 지그 지우로 잇던 리수일은 그닥 지 어리석은 자가 안이더니 오날날 감아니

보면 발광을 호스름 일세 그려 실성호사름을 보고서 말을 하면 무슨 효력이 잇겠는가 만은 일기 조고 마흔 녀 즈로 하여서 발광 디경사지 일으는 것은 명석이 친구로 잇는 너 얼골이 도로 허붓그러 위이여 보게 리수일 즈네 다려 사름들이 모도 강도놈이라고 말을 하게 죄인이라고도 말을 하게 또는 밧천놈이라고도 말을 하게. 이런 말을 듯고서도 분홍 마음이 업는가 분기가 일어나거든 나를 주먹으로 찌리던지 발스길노 찌리던지 마음 디로 하게 빅락관은 스스로 말하며 스스로 노하여 지그의 몸을 지그의 손으로 두다릴 당시 괴석을 지으며 수일의 디답나 오기를 펄박한다 나는 분홍지 안이 하여 분홍 마음이 업서... 그러면 남들이 강도라든지 밧천놈이라든지 간에 조금도 마음에 관게가 업다 하는 말인가 「네가 너 생각을 하여도 밧천놈인 줄을 아네 일기 녀 즈로 하여서 장부가 실성호는 것은 즈네게 디 하여서 면목이 업고 디 답할 말이 업네 그러나 임의 발광을 호스름이니서 지금 다시 엇지 할 수가 있나 멋처럼 만에 권고 하여 주는 즈네의 말이 지만은 너 몸은 너 디로 아저 간 그 디로 너 바려 두게 수일은 간신히 입을 열어 이와 처치 말하였더라 응 그려면 즈네는 저러 호돈으로만 마음을 위로하고 잇단 말이지」 아저 그 돈가지고는 마음을 위로 할 수 업네 「그러면 어나 썩나 마 음이 위로 되겠는가」 그것이야 알 수 있나 「그리고 즈네는 그 간에 장가를 들

엇는가」 「안이 들었네」 「엇지하여서 장가를 들지 아니하였드라 말인가 이러케 집을 짓이고 살림하여 주는 사람이 없스면 불편할일이 되단이 만을걸」 「안이 불편할것도 없네」 「즈네가 지금에는 그네즈를 엿더케 생각하고 있나」 「그네즈가 누구인가 심술이의 말인가 그네은 런하에 김성만도 못할년이지」 「그러나 지금으로 말을하면 즈네의 하는일도 김성보다 나을것이 없슬듯하이 고리더금 (高利貸金) 하는 자들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일은 안이니사 사람으로 사람의 마음이 없스면 금수에서 조금인들 다를것이 무엇인가」 「즈네의 말은 그러 이만은 세상사람은 거의 모도가 김성과 또지안이한가」 「그러면 나도 김성이란 말인가」 「여보게 수일이 즈네는 그네즈가 김성 못흔히위를 하였다고 거기에 마음이 겨동되어서 즈네 좃츠 김성이 된것일세 그러 그러나 만일 그네즈가 김성 못치먹엇던 마음을 뉘웃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라올것 못흐면 그에 좃츠서 즈네도 지금 잘못드러던 마음을 곳치겠지」 「그계집이 사람의 마음이 되여... : 그것이 될스번이나 할말인가 나는 이러케 취리를하고잇셔도 남을속이는일은 결단코아니하네 처음부터 변리가 빗산말은하고 주는돈이니사 실인사람은 취하여가지아니할것이요 그리고도 쓰려고하는 사람은 쓸러이지 쓰지안이하는 사람을 여지로 강제를하여가며 주는것이 안일세 술이 못치 김성만도 못할것이엇더

다시 사람이 될수가잇나 그것은 도저이 안이될말이지」 「엇지하여서 안이된다는말인가」 「엇지하여서 무삼리유로 즈네는 된다는가」 「그러면 즈네는 그네즈가 다시 회키하여서 서스름되기를 바라지안이하는 말인가」 「안바라지 안바라 그런계집은 나는 소용업네」 만일 술이가 그자리에 잇스면 슈일은 그얼골에 춤이라도 비앗들듯흔과식이라」 「즈네는 그러케말할지라도 모르겠지만 은 즈네를 위하여서니가 할마디말할것은 그네자가 자금와셔는 크게 회과를 하고 즈네에게티하여서 잘못흔죄를엇더케뉘우치고 잇는지 모르겟데」 슈일은 천정을향하여 티쇼한다」 「그네즈도 그와갓치 회키를하였스니 이제는 즈네도 회키하게 그만하였스면 이런영업은 그만들셔가 되엿슬듯하이」 「술이의 회키는 술이의일이요 너에게야 쇼품인들 무삼 판계가 잇겟는가 그김성갓흔계집도 인제는 제잘못흔죄를 써다른것이 지」 「요전에 너가 평양을 내려갓다가 우연히 만나셔 티동강에서 빠져죽으려하는 그네즈의 몸을 너가 구하여너엿는티 그뉘에나를 보고 눈물을 흘니면서 원통흔소리도 말하거니와 전에 잘못흔일을 뉘웃치고 키사 복죄를하면서 진정으로 회키를흔모양이데 그리하고 나다려 즈네에게 말을잘하여달라고하데 그것을못하겠거든 즈네를흔번만 만나보게 하여달라고 울며미여달려서 청을하데 그러나 나는 또성각하는일이잇셔사

못하겠노라고 거절하였네 또는 저네에게 티가 나서 그녀가 저와 갖치 회기를
 하였스니 전사죄를 용서하여 주라고 권하는 말은 안일체 다만 나는 그녀가 이
 제는 회기를 하고 호을 노근심을 하고 세월을 보지는 모양이니 즉 말을 할 것 같
 면 스스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니 사 저네도 역시 저네가 그녀에게 향원망
 을 프러도 조할 듯하니 저네가 그 마음을 풀어 버리면 아마 생각건대 이전 리
 슈일이 가다시 될 듯하니 자네의 말이 아주 사지도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고 어나
 락나 마음의 위로를 받을는지 모로겠다 하나 그녀가 말서 회기하고 목숨 사
 지 않으려고 결심을 하였스니 저네 마음에도 얼마큼 분한 마음이 위로가 되
 지 안이 할 단 말인가 저네가 요사이 멧헛동안에 늘던 지물이 슈효가 얼마나 되
 는지 알슈는 업스나 그 돈보다도 그녀 저의 회기하였다는 말은 마디가 훨씬 힘이
 잇서 사 저네의 마음을 위로 할 줄도 나는 아난디 「그것은 내 마음의 위로는
 고스하고 슈이로 말을 하면 그 고성을 받아야만 당연 할 일이지 슈익이 아모리 전
 비(前非)를 뒤엎었다 하기로 너가 한번 일허바리였던 물건은 이제 다시 었을
 슈는 업는 일일체 그러케 생각을 하고 보면 나의 오날 사 경우는 슈익의 회기로 인
 연하여서 능히 내 마음을 위로한다고 말할 수 업네 슈익이 전일에 헛짓을 생각하
 면 미웁고 분하기는 한량이 업스나 그 분한 마음을 내가 마음을 위로 하고 지내

지 못하는 것이 안이요 또는 그분부리를 또 하고 하는 마음은 결단코 업네 그
 김성만도 못흔 계집년을 다리고서 말할 가치도 업네. 오날와서는 후회를 하도라
 하니 후회 할 것은 처음부터 정호 리치가 안인가 처음에 잘못 할 일이 업섯드면
 지금와서 후회 할 일이 업섯을 것일 「그러하기에 나는 부득이 그녀를 용서하
 야 주라는 말이 안일체 저네는 저물로 마음을 위로하려 하나 부득이 부정 할 영 업
 을 질기여서 할 새 틈이야 무엇인가 그러나 돈을 모으드리도 정당 할 슈단으로
 하는 것이 죠하니 목적은 변하지 말드리도 방법과 슈단만 못쳐서 놓게 「티단이
 미안 할 말이지만은 너가 저금 현충 호정신이 아주 세이지를 못하였스니 사 리슈
 일이는 밋침음으로만 알고 일절 관계를 하지 말고 그티로 너바려 두어 주게 「응
 그러하면 아모리 하야도 너 말을 듯지 안이 하겠다 말인가 「그저 용서하여 주
 게 「무엇을 용서하여 너는 나를 바렸지 나도 너를 바릴터이다 피츠에 인제
 는 서로 관계가 업는 사람인디 용서 여부가 무엇이나 「슈일은 일어 스려 하는
 빅나관의 소미를 붓들며 「오날 사 마지막으로 이전 청분을 풀어 버리고 작별하
 는디 티하여서는 나도 저네 다려 한마디 물어 볼 일이 잇네 티체 저네는 지금 었
 지하고 지니는 모양인가 「네가 었지 사 너는 저네 눈으로 보면 알 일이지 「그저
 보기만 하고 사야 었지 안 단 말인가 「응 나는 티단이 구차하게 지니고 잇네 「구

추히 지니는 줄을 나도 아는 일이지」 「그뿐이지 다시 무삼할 말이 있나」 「그뿐
 이라니 말이 되나 무슨 사득으로 벼슬을 너여 바리고 스방으로 유리 표박 하면서
 저렇게 곤난히 지너니 무삼연고가 잇기에 그러하지」 「네가 그리유를 말하기
 로 너긋흔 광인이 었지 알겠느냐」 「흥며 백락관은 크게 웃고 몸을 일어 쓴다
 「알아듯던지 못알아듯던지 할마디 말 못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면 무엇
 하겠다는 말이야 응네가 돈냥이나 잇스니 사 돈이나 조곰 취하여 주려고 하
 는 말이나 나는 그것도 고맙지 아니하다 적빈여제(赤貧如洗) 할 몸이라도 마음
 은 항상 질거이 잇네」 「그러하니 사 더욱 이상하지 아니 할가 간난은 할 여도 항
 상 마음은 질겁다 하니 그것이 무슨 사득인지 말 할 마디 하여 유께나 그러」 「백락
 관은 티쇼하기를 마지 안이 한다 「너갓치 다씩어서 죽은 것과 긋흔 스나 희지 사
 이 그 말을 들으면 었지 알겠니 제법 스름의 쇼리긋흔 말을 다 못난구나」 「즈네
 가 그러듯 수치를 보여 주드리도 나는 티달할 말이 업네 나는 말서 다씩어 진
 몸이니 사」 「물론 그러하지」 「이러케 말서 씌어진 내 몸은 지금 다시 었지 할 수
 가 업지만은 즈네는 임의 동경에 류학 사지 하여서 졸업 후에 죽시 고등관이 된
 스름이니 사 나는 즈네를 이세상에 유용 지기로 알고 조곰도 의심치 안이 하였네
 나는 즈네가 출세하기를 은근이 마음으로 축수 하고 잇섯네 즈네는 나를 김성이

나 밋친놈이니 도적놈이니 말을 하지 만은 즈네를 생각 하고 잇는 마음이 내가
 솜속에 썩난 날은 업섯다네 오날 사 사지 즈네 외에는 다시 친구가 업는 줄로 알고
 잇네 저작년이 든가 즈네가 진주군수를 하여 가지고 도임하려 잔다는 말을 듯고
 었지 반갑고 조흔지 몰나네 또 한편으로 너신세를 생각 하니 사 설은 마음만 소스
 나서 그날은 종일도록 밥 한술을 먹지 못하였네 그 말을 듯고 곳 가서 즈네에게
 치하라도 하였스런 만은 아모리 생각 하여도 즈네를 만나 볼 몸이 못되니 사 은근
 히라도 즈네가 잘된 모양을 나흔 즈라도 가서 볼 가 하고 남디 문정거장으로 나가
 서 즈네 처나는 모양을 보고서 었더케 내 마음에 조흔지 깃거운 마음에 눈물만
 나오네」 「백락관은 은근히 고기를 쓰덕인다」 「흔척상에서 머리를 마쥬다이고
 흠씩 공부하던 즈네가 출세 하여 가는 것을 보니 사 그씩은 열마나 반가왔겟나
 그러러니 오늘날 즈네의 일어스듯 령락 혼 모양을 보니 너마음이 또 었더 하겟는가
 생각 하여 보게 너 몸의 었더 하겟은 도라보지 안이 하고 즈네를 향 하여서 감히 이
 러 할 말을 할 위인이 되지 못하지 만은 나는 말서 너 몸이라 하는 것은 도라보지 안이
 할 네 일기 너 즈에게 속은 것을 분히 녀어 서 제 몸의 일심을 그릇치는 것으로 모
 로는 것이 안이지 만은 제 마음을 제 생각으로 능히 바로 잡지 못 하는 것은 전혀 너
 의런 성이 어리석고 비루한 사득이라고 너역서 제 몸의 못싱긴 것을 한탄 할 뿐이

오 곳치지 못하니 나는 사라잇셔도 죽은 스름이나 다름이 업고 나는 이 모양으로 잇다가 이 세상을 맛칠터일세, 스네의 친구로 잇던 리슈일은 임의 이세상에 서 죽어 업셔진 스름으로 알아 주게 그러호고로 이 말은 리슈일이 가 호는 말이 안 이라 스네의 친구중 엇더호스름이 스네 몸을 앗기여 주는 마음으로 충고호는 말이여니 호고 들어 주게, 엇더호스정이 잇는지 스네가 말을 하지 안이 호니 사 알 슈는 업네만은 스네의 몸은 아 못 조록 스중(自重) 호여셔 스회에서 유익호일을 하여 주기를 바라 고 밋는 바일세 스네가 저러케 곤궁호게 지니는 모양 갖호나 열단코 이세상에 서 비척을 당홀 스네의 몸은 안인 줄을 나는 밋고 잇네 그러호니 스네는 일기인으로 스그리를 위호야 몸을 스중호라는 것이 안이라 일반 스회를 위 호야셔 몸을 스중호라 호는 말일세 만일 스네가 그 저 조와 지혜를 쓰기 위호야셔 스회에 출각호려 호를 갖호면 스네의 친구 엇더호스름은 힘의 밋치는 바 사 지는 조 력호여 줄싱각일세」호며 슈일의 얼골은 처음에 비창호는 괴석이 호연 변호여 지며 화려(華麗) 호광명(光明) 이 점々 낮세난다, 빅락관은 슈염을 쓰다듬어 나리며 고기를 들어 슈일의 얼골을 호를 갖치여 다 본다」응 그러면은 스네는 내 가 이러케 령락호여셔 류리호는 것을 가엽시 녀여 호는 말인가 스네의 그 말 은 티단이 조호말일세 그러나 여보게 슈일이...: 세상에 너 갖호 고리디금호

는 자들이 잇기 썩은에 호를 호인지가 모든 명예를 상호고 몸을 그릇쳐서 사회 밋그로 썩겨나셔 한갓 초목으로 호가지 썩을 썩이니 네가 지금 말이 사회를 위 호야셔 몸을 자중호라고 나 갖호 스름이라 도 그러케 말호여 주니 고마운 마음은 칭량이 업네 그러호면 스네도 스네의 호던 말과 처치 사회의 공익을 위호여셔 그 부정호영업은 그만두게 나는 스네를 위호여셔 충고호는 말일세 이세상에서 유용호인지를 멸망케 호는 자는 제 집과 호는 고리디금호는 자 들이 나라, 이와 처 령락호빅락관을 네가 만일 가엾시 여이는 마음이 잇슬 갖호호면 네 손으로 곤난을 슈는 여러 인지를 더욱 가엾시 생각호여 다고, 스네가 사랑호던 녀저 에게 실피호고 고등호는 것이나 엇더호스름이 돈이 업셔셔 고등호는 것이나 그 괴로운 일에 티호야셔 조곰도 다를 것이 업네 나도 이러케 곤궁호게 지닐터인고 로 이근심을 논아호야 줄 친구가 호스름도 업는 것을 한탄호엿네 이전에 리슈 일이 갖호 친구가 잇섯드면 조호를 호는 생각이 업지는 안이 호엿네 그러터나 그 생각호던 친구가 나의 몸을 생각호고 스회에 나셔셔 분투(奮鬪) 호를 갖호호면 나도 일비지력을 도아 주게 노라 호니 그 말을 들은 녀마음이 얼마나 김겉겉는가 세상의 서 가장 절거운 것은 봉우안이요 가장 미운 것은 빛노이 호는 놈이니...: 이전에 형데 갖치 지니던 친구가 오날 날 빛노이장이...: 아...: 나는 괴가 막혀

셔다서 말이나 오지안네」 하며 빅락관은 말을 굶치고 슈일의얼굴을 로호는
 으로 흘기여본다 「여러가지로 저네의권고할여주는말은 더단이 고마워이 나
 도급히 생각하고서 지금의씩어진몸이 전과뫼치 결빅홀스름이 다시 되면 그
 외에 더 초흔일이 없게네 저네도 썩흔 저의저중(自愛自重)하게 다했은 이왕
 이모양이 되었지만은 저네나 이세상에서 크게 씨이노모양을 진정으로 보고
 심히이 저네는 반다시 크게씨일스름이 이렇케씩를맛나지 못흔것을보면 내
 마음에는 원통하고 슬허서 못견더겅네 나도 인제 저네잇는데를흔번 초저갈
 터이니 지금 저네잇는듯는 어난곳인가」 「빛노이하는자가 내집에와서 무슨소
 용이잇나」 「응 그날은 저네 친구의저격으로 초저가지」 「친구……나는 빛노
 이하는 친구는 스피지 안이하여」 「뵈그로서 문이 조용히 열리며 기침소리도
 업시 방안에들어스는스름은 최만경이라 빅락관과 리슈일은 일시에 고기를
 들어 드러오는스름의얼굴을 바라보더니 남저의좌석에 무례히 돌입함을 수일
 은 미안히녀이였으며 썩흔 혼편으로 놀내엿더라 최만경은 위선 슈인에게
 인스를맛친후 다시 빅락관을 향하여 두어마디로 인스흔후 혼엿으로 비키어
 단정히 안지며 얼골에는 우음을 씌우고 방저히 방안에 들어온히물을 무안할
 게 녀이노듯시 쥬져쥬져하고 말을하지못한다 빅락관은 다시 점자는 모양을

짓고 최만경을 바라보며 「여기서맛나 보기는 의외 요구료……올치 리슈일이
 하고는 동스하느스이니서 서로 친홀터이지」 수일은 좌우로 난호아보며 여
 보게 저네는엇지하여서 이부인을 알든가」 「응 조금 알지 그러나 내가 올의
 여귀 안자잇스면 공연히 방히가 될터이니서 나는먼저가겅네」 「여보시오 빅
 락관씨」 하며몸을 일어스려하는 빅락관을 최만경은 중지케하였더라 「아이
 런데서뵈옵고 말씀하기는 더단이 미안하외다만은……」 하며 최만경은 빅락
 관의 괴식을 살펴본다 빅락관은 고기를 돌리고 손을좌우로 내여져으며 「그
 말은 이런곳에서 드를말이 안이야」 「그렇지만은 언젠지 더예를 초저가면
 갈제마다 안이게시니서 일이 결말날씨가 잇셔야지요」 「아모리 나를 멧천번
 맛나기로 무슨 썩치날수가 잇셔야말이지 나는보나 안이보나 맛찬가지요나
 는 다라나든지 숨든지할스름은 안이니서 초흔기회나 도라올씩를 기다리고잇
 슬수밧게 업슬가보오」 「그야 얼마동안이든지 참기야하겅지요만은 당신스세
 만쫼도록하고 기다릴수는업셔요 그생각을 좀하여쥬셔야지요」 「응 생각하고
 말고 나도 남의것을 갑호려고 생각하느스름이지 범연히 잇는스름은 안이야」
 하며 빅락관은 빗웃는 우슴갓치 허허하고 다시 일어스다 수일은 빅락관의
 두루막이자락을 잡아다리며 「여보게 이왕 저무릿스니 저녁밥이나 뫼치먹고

가게나그려」「즈네말은 티단이 고마운말일세만은 장부불음등천수(丈夫不飲
 銅泉水)라니 나는 집으로가서 내밥먹지」「여보시요령감 멋처럼만에 오셨다
 는티 저녁이나 잡수시고 가시지요 어서이리안지셔요」하며 최만경은 빅락관
 의 서々잇는 다리아리에 방석을 밀어노으며 실노손을 말류하는주인보다 더
 옥호는모양이라 빅락관은 수일과 최만경의거동을 눈썹리로 흘기여 나려다보
 며「천연히 부부간갓타이그려 천하에 무부티라드니 참잘모였다」「내원술노
 아셔도 관계업스니 어서자리에 안드셔요」본리부터 머무르지안이하고 빅락
 관은 드티여 묵어운 거름을 문으로향하여 옮기이며「응이놈 수일아 네가:
 ……」「……………」「………」「………」「………」「………」「………」
 마디가 수일의가슴을 무흔히 요동케하여 빅락관이가 티문밖글 나아간후에도
 오히려 고기를 들지못하고 무삼싱각인지 김히호는모양이라 조곰있더니 탈
 포불을켜가지고 경황이업시 몸을움치고 안자잇는 두스름스이에 로파는 드려
 다놓는다 등불에 빛초이논 최만경얼골을 완연히 빛과 향기를 방자히하는 모
 란화홀가지가 만기하여드리운것다 최만경은 수일의압홀가히오며 수고리
 고잇는 수일의얼골을 허리를 굽히여 정다이드려다보며「여보 수일씨 웨 그
 렷게 실심을하고계시오 무슨일이 잇소……」수일은 비로소눈을 들니여 보며

「티체 당신은 엇지하여서 빅락관을 압더닛가」「나는 말셔 온지가 올이되
 었지 요만은 당신씨셔 그량반하고 그릿게 천하신줄은 참 몰났셔요 나는 의
 외로 아는티요」「글세 그스름을 엇지하여서 알았셔요 무슨 관계로 알았드란
 말이요」「돈낭거리가 잇셔서 알았지요」「돈낭……」그러면 빅락관이가 당신의
 돈을 써사다하는말이요…… 그러면 돈을얼마나 취하여주었소」삼천원이나
 되지요」「삼천원……」그러면 그돈을 언제주엇드란말이요」최만경은 자기의
 무름이 수일의몸에 접하였스되 오히려 써닷지못하고 도로혀 갓가히 다가온
 지며 열심으로 못는모양을보고 주순이 였니고 옥지가 드러나며 은근히 우음
 을 띄우고「여보 당신은 내싱각만하느량반이야 자기에긴호일을 무를제는 아
 조 정신업시 열심으로하면서 평일에 내가 무슨말을하면 도모지 티답을싱각
 도안이하지」「앗다 그런소리는 말아요」「웨하지말아 나는 좀 더홀길」「글
 세 그돈을언제 주엇단말이요 못는티 답을히야지」「나난물나요 이져바렸셔요」
 「그리지말고 어서바른티로 티답을하여주구료엇더면 그돈은 내가티신하여주
 리다」「나는 당신에게는 그돈을받지안이 홀터이야」「아모릿튼지 돈만받았스
 면 좇치안소」「그돈이 당신에게는 조곰도 상관이 업는티 웨 이리하시오 또
 는 만일당신이 티신 물어노켓다고 정히하시면 나는 그돈을 받지안이하고 띄

여버릴터이야요」「그것은 왜 그리하시요」「무슨 사단이던지 나는 그렇게 할터
 이니사 당신이 정히 되신물이 늦게다고 하시면 그것은 나드려 밧지말고 랑감
 하여 주라시는 말과 맞찬가지요 당신말씀에 그돈은 밧지말나 하시면 나는
 두말안이하고 그만당감하여 바리지요」「그것은 무슨 사단으로……」「무슨
 사단일런지 나도알수업지요 왜 그랬게 귀가 어둡소 알면셔도 부러모르는체
 하고 그리시는말씀이지」「응을치 인제 되강은 알아들것소」「그러면 알면셔
 도 왜 못알아들은체하고 계시오 그리하시니사 내마음은 점々 더 야속하기만
 하지」하며 최만경은 슈일의얼굴을 원망하는듯시 흘기여본다「앗다 그런소
 리는 하지말고 다투는말이나 되답하여 주어요」「되체 당신은 자기갑々흔것
 만 데일로 알고있지」하며 최만경은 권연을 내여피우고 안자있다「그사람이
 무슨 사단으로 당신에게 빚을 써스단말이요 알수업는일々체」……
 ……「삼천원이나 되는 돈을 무엇에 급하여셔 그리하였노」……
 ……「최만경은 오히려 되답이업고 담비만 피우고 있다「글세여
 보자셔흔되답을 좀하구료」나도 되답을 안이하고 모로운체하시사 아마 당
 신도 갑々하고 못견디겠지요 당신도 갑々흔일을 좀당하여보시요 그리고셔
 남의성각을 좀 하야주시오 그맛시 엇더한가」「그것은 무슨 지각업는 말이요

어서 말하시요」「그러면 내말하시요 할수있나 녀편네가질수밧게업지 그돈이
 밧셔 여러히되었소 처음에는 그량반이쓴 돈이안이라 남의보를셨다가 그스름
 이 결단이 나서갑지를못하게되고 사름까지 어더로 도망을하야버리니사 할수
 업시 빚략관씨가 그취무를 맛타니게되얏지요」수일은 고기를 숙이고 더욱히
 최만경의 말을듯고 잇더니 흘연양협으로 두줄눈물이 흐름을써닷지못한다

데이장 謝罪

식문방닝동 리수일의집에는 적々히 비인잡々체 이적이업는디 수일은 호을노
 방안에서 책상을 의지하고 손에는 두어발이나되는 편지한장을 들엇더라「이
 편지는 순이가 조씨의허물을 회기하고 수일에게 용서하기를바라는뜻으로
 호원하는 데이츠의편지라 처음에 보닌편지는 이쥬일전에 수일의슈춤에 들어
 왔슴으로 글조흔아도 빠스치지아니하고 보앗더라 그러나 편지속의스실은 향
 자에 비략관과 문답을제 수일의되답하바와 조곰도 다름이업는뜻으로 순이의
 호소하는셔찰을 일々히 보앗더라 그러나 지금에 데이츠로 보내인편지는 전
 에 붓친뜻과 조곰도 다름이 업스리라하야 조셔흔뜻은 보지도아니하고 것봉
 만져하여 편지를 펼쳐노앗다가 마음만 상하고 눈만더러울터이니 무삼 필요
 로 그편지를 조셔히 보리요 하는뜻으로 편지를 구기구기하여 흔편구셔으로

녀여던졌더라, 순이의마음은 그슬픔이 엇더하얏스리오 두번스지붓치는 편지
 는 순이의 터지는 가슴을 발표하고 잔절흔정경을 다하여 세상과 몸을 이저바
 리고 저의 죄과를 조복하얏슬뿐이요 혼장편지로 능히수일의 마음을 도로키리
 라는 생각은 싯하바야니라 그런고로 멧철을 지니되 다시 수일의 회보가
 업슴을보고 순이는더욱슬픔 마음을 여제치못하야 세번스지 편지를 보너엿더
 라, 그러나 수일은 두번스지편지도 조셔히 보지아니하엿거늘 비록천릭번을
 붓치기로 수일은 어리석게 순이의뉘웃친말을 보지도안이하기로 결심하얏더
 라, 그후멧철지니여 순이의필적이 우체로 다갠갠나 수일은 피봉도 썬이지
 안이하고 불속에 너헛스며 그필적이 눈에썬올제마다 순이의 현형이 눈압해
 낫타나며 평양만슈디에서 김중비와혼가지로 밀회(密會)하던당시를 생각하코
 분흔마음이 다시 일어늘다 그러함은 조곰도 아지못하코 하날에 축원하야 이
 몸의천만가지 마음의 만분일이라도 그스름에게 통함이될가하늘마음으로 조
 용흐를만잇스면 반다시 수일에게향하는붓을 잡고 한이업는 회포를조희우에
 늘어논는다, 순이는티동강에서 빅락관에게 구음을 입은후 다시 김중비에게
 로논가지안이하고 그날로평양을 등지고 서울로향하여 천가부모의집으로 드
 러왔더라, 처음에는 싯택내외가 지각업슴을 썬지졌스나 혼가지로 먹고잇는

순이의마음은 능히 변하지못하코 날과달을 천가에서 심란하게보내일제 다만
 쥬야로 바라노바는 목숨이 쓴어지기전에 수일의얼골을 혼번다시 보고용셔하
 여쥬겟다는 말하마디를 기다린단, 이와호흔마음으로 네번스지붓친편지도 수
 일은 도라보지안이하고 싯하 불속에집어너헛더라 그후이삼일지내여 순이의
 필적은 다시 수일의수종으로 드러오니 다섯스번스지오는편지는 수일이가 손
 에 들고 안팎그로 뒤집어보며 피봉을 썬히려하다가 다시 멈치고 혼자싱각이
 라 「용셔하야달나는말이갓지 그외에야 이편지를 쓰더보아야 할일이 잇슬까
 들은 업지 만일 불가불 필요할일이 잇다하야도 그일은필연 티답하기 어려운
 일이갓지, 용셔하야달나하면 용셔하야쥬지 또는내가 용셔하지안는다하야도
 밧셔 스스로 용셔를밧은 스름안인가 제가회귀를하얏다하니 회귀하얏스면더
 유쥬치 회귀하얏스니 용셔하야달나는말이나 내가 입으로 용셔하야 쥬마하기
 로 그말하마디가 무삼필요가잇나 그말이 오날사 리수일과 순이스스이에 무
 손 영향이 잇슬수가잇나 회귀하얏다하기로 녀자의흔번더럽힌몸이 다시 회복
 될일도 안이요 내가 용셔하야쥬마하기로 김중비에게로 가지안이하얏던 전일
 순이는될수업지 그러나 리수일이라하늘스름은 십년전이십년전 리수일이로
 조곰도 다름이 업는스름이다」 수일은 홀연 노리가 얼골에 올으며 편지로기

등을 락찬다 「이년순이야... 너는 죽어서 썩어도 더럽힌몸은 썩기지안이 할라
라 일이모다 그릇된 오날々이야 와서 회키니 용서니하니 그것이 무삼소용이
있는일이나 아조 쓸디업는일이다. 전일에는 결박훈몸으로잇는 순이이니사
사랑앗지 그러든 몸을 내가 네손으로 더럽혔스니사 인제는 내가 너 갓흔년
을 원망하는것이다 또는 흥변 몸을 더럽힌이상에는 그보다 예스십비나되는
덕행(德行)을 닦갓다하기로 그 더럽혔던몸이 다시 결박훈몸으로 도라오지는
못한다. 그러하기에 내가 무엇이라고 말을하더냐 뒤동강변에서 우리가 하여
질척에 너 다려말하기를 너의게는내가 말해도알스름이업스니 내목숨이업서지
는 일이잇드려도 우리의인연은 싹을수업스니 내 마음을 가련히 녀이여서네
가결심을 하여달라고 명석이 스나희 자식의말又지도 못훈말을하여서 너 다려
이결하드심히 하였는디 그러든 리수일을 비반하고가서... 무스면목으로
지금드시 회키... 그러든 써여지고 물은업질너졌드 스이만의(事已晚矣)라
수일은 드시편지를 기동에 두서너번이나 쓰리며 두손으로 비비짚며 잇드, 그
후에도 계속하야 순이의 편지가 일유간에 흥변식은 반드시 오는지라 보지도
아니하고잇는 편지는보내고 보내건만은 펴보지아니하는 순이의 편지가 거의
싹여쳐에 일으렷더라. 수일은 그편지가 올제드 피봉과훈가지로 불속에 들

어가지만은 거의이져바려가는 순이의 일흔이어나곳에잇서서 뒤웃고 슬허하
는줄을 은근히 이져바릴날이업섯더라. 여러가지로 감구지회에 몸이 피곤훈
수일은 방안훈가온타에 번듯시 누엇드가 흥연 잠이들어 현세의스실을 씩속
에서 비회하는듯 창밖게서 록음을지축하는 봄비는 첨하에서 락수듯는쇼리만
뚝々듯는드. 때는 오후일곱시니 저녁을 짓노라고 부억에잇던 로파는 끈히잠
이들어잇는수일의 몸을흔들여 써우는디 놀내여 써다른 리수일은 로파를쳐
다보며 「웨그리」 「밖게손님이 오섯습니다」 「엇던 손님」 「빅락관씨리요」 「응
빅락관이...」 하며 리수일은 급히 이러나며 「어서 사랑방으로 들어안지
시라고하게 곳나가올이라고」 리수일은 빅락관을 흥변작별훈후로 두서너번이
나 빅락관의집을 차갓더라 그러나 어느때든지 가는날마다면회를 엿지못하고
도라와서 집을안후에는 이슴쳐에일로도록 편지를보내이되 소식도 돈연히 곳
치는고로 그후의 여하를 최만경에게물은즉 다른일은업시 그곳에서거주한다
하는고로 과연 그스름은 전일의하든말과又치 절교코자하는 스름인가하여 부
득이 심방하지도안이하고 일삭이넘도록 지내엿더라 그러나 오날々 흥연이그
스름이 스스로 차자음은비록 절교는하든하얏슬지라도 전일의 구의를 거연히
싹치지못하고 이와又치 무한훈근심에 괴로이지내는 이몸을싱각하고 차자음

이니 봉우라 하는 것은 이와 못치 서로 바리하지 아니하는 정리가 잇슴이로다 하며 수일은 물을 썬오라 하여 세수를 하고 송/히 밧그로 나아가서 방문을 열치고 벽탁관은 잇지 안이 하고 아름답게 단장한 일위녀즈가 붓그러움을 먹음고 벽을 향하여 도라셔/어 있다. 수일은 녀즈가 잇는 모양을 보고 드러노으려하던 말스길 을 멈추고 /서히 좌우를 살펴 보며 아지 못하는 사람이 방안에 드러와서 잇슴 을 고이히 녀이여 아리로 우으로 살펴 보며 「엇더하녀즈신지는 모로지요만은 엇지 하여 오셨쇼 당신이 벽탁관이라고 하시니 랑반이요」 그녀즈는 뒤답을 일으 지 못하고 얼골을 들녀/어 있다 가 다시 속이 고 몸을 도로키려 하얏다가 다시 구 셔으로 피하여 드러간다. 수일은 /가히 가서 그 얼골을 드러다 보더니 홀연 목 소리를 크게 질으며 「무슨 불일이 잇기에 여기까지 초/와셔」 「.....」 수 일은 분기를 아지 못하는 모양으로 「응 수이로구나 네가 녀집에를 무슨 일이 잇서서 왔느냐」 수이는 /그의 일출을 부르는 목소리가 가슴에 다 닿치며 반가 운지 슬픈지 아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안지며 호읍한다 「글세 무슨 일도 녀 집을 초/와셔」 이썬에 수일의 마음은 노을는지 원망할는지 욕을 할는지 슬 혀할는지 부르지 질는지 희망을 할는지 /썬지 질는지 일시에 만감이 교집하여 /그의 몸이 엇더함을 아지 못하고 전신은 다 만떨니고 잇슬 뿐이라 「수일씨 제발

용서 하여 주시요」 하며 수이는 잔신히 얼골을 들어 수일을 향하여 바라 보다가 노기가 가득한 수일의 모양을 감히 바라볼 근력이 업시 도로고기를 속이고 잇 다 「어서 가오」 「.....」 「수이.....」 멧허스 동안을 주리고 듯지 못 하던 그 사람의 음성은 홀연 반가움으로 수이의 모양을 내려다 보는데 그 눈에는 님의 다 수일은 분기가 가득한 눈으로 수이의 모양을 내려다 보는데 그 눈에는 님의 눈물이 가득하였스니 그 눈물은 아지 못게라 누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요 「지금 와서 우리가 다시 맛나 볼 필요가 업는 일이다 /는 네가 무슨 얼골로 녀 얼골을 뒤/어니 요전부터 여러 번을 붓치여 보는데 편지는 모도 녀 손으로 밧았스나 홀 번도 /혀 본 것은 업다 편지가 오면 오는 즉시에 불에 살나 바리였스니 이후에는 다시 편지를 붓치지도 말고 나를 초/보려을 생각도 하지 말아 나도 일상병으로 하여 남하고 올이도록 슈작을 할 슈업스니 여/가요」 무엇이 라 말을 일오지 못하고 눈물에 어리온 수이를 녀어 버려두고 수일은 호을 노 문박 그로 나아가 몸을 피코/호다 「수일씨 녀가 오날 여/까지 초/온 것은 아/조마지 막 뵈옵고 죽으려고 왔스니 당신 마음대로 죽이든지 살이던지 임의로 하여 주오 전일은 엇 지 하였든지 오날은 잠간 스 동안만 용서를 하시고 녀 말을 잠간 들어 주시오」 「말이 무슨 말이야」 나는 정말 희기 하였소 여보시요 수일씨 나..... 나

는 인제야 후회가 남니다. 저서할 말씀은 요전에 편지에 써서 보던 것만은 도
 모지. 할장도 보시지들안이 호였다니. 후회호. 너마음이 엇더호지야마. 자서히
 아실슈가잇습닛가. 뵈옵고 입으로말호. 차나 입으로는 다말습호. 지못호. 일뿐이
 요편지는 쓸줄모르고 두셔가업시 호. 엇지만은 그리도 그편지를 저서히 보아
 주섯드면. 티강이라도. 너마음이 엇더호. 지알으섯을. 여러가지로. 당신압헤서
 스죄호는. 말씀이라도. 엇좁고심으나. 막이얼골을. 이리케티호. 면. 무안호고. 슬픈
 마음뿐이니. 목이막히여. 말을할수가업습니다. 그려. 내가오날. 이리케. 차온것
 은. 죽조고. 작당호고. 온길이니. 그릿케. 알아. 주십시오. 「그러호니. 엇지호. 라는. 말
 이야.」 이리듯. 굿게. 결심호고. 썩. 혈말이잇스니. 아모리. 괴로우시드. 리도. 잠간
 만. 말씀을들어. 주시오. 「눈물을. 흘리며. 두손으로. 방바닥을. 잡고. 서서. 잇는. 슈
 일의. 다리. 아리에. 고기를. 숨이고. 잇스니. 수일은. 오직. 그모양만. 나려다. 본다
 「륙년전. 삼월. 열나. 혼날. 그날을. 생각호. 겠지.」 「……………」 「그썩. 를. 생각호. 못
 호. 겠다. 는. 말이야.」 「내가. 이져. 바틸. 니가. 잇습. 니가.」 「응. 그러면. 그썩. 에. 리. 수. 일
 이. 마음. 을. 오. 날. 이야. 내가. 알. 겠지.」 「그저. 내가. 잘못. 호. 었. 스니. 용. 서. 호. 여. 줍. 시. 요.」
 「홀. 연. 뒤. 도. 저. 라. 보. 지. 야. 니. 호. 고. 거. 름. 을. 쌀. 니. 호. 여. 밧. 그. 로. 나. 야. 간. 수. 일. 은. 할. 멈. 서. 서.」
 「부. 르. 는. 소. 리. 차. 로. 들. 니. 며. 마. 로. 서. 서. 슈. 인. 의. 업. 며. 저. 정. 신. 을. 초. 리. 지. 못. 호. 는. 방. 안. 으

로. 향. 호. 여. 오. 는. 밧. 조. 최. 나. 더. 나. 로. 파. 는. 방. 안. 으. 로. 드. 러. 와. 슈. 인. 의. 어. 자. 리. 이. 울. 고. 잇
 는. 모. 양. 에. 놀. 내. 이. 는. 듯. 시. 한. 참. 이. 나. 말. 은. 업. 고. 드. 러. 다. 보. 고. 잇. 다. 「니. 리. 듯. 아. 름. 다. 운
 귀. 부. 인. 이. 슈. 인. 과. 무. 슴. 스. 단. 이. 잇. 서. 서. 이. 리. 듯. 슬. 혀. 호. 는. 고. 호. 며. 갖. 가. 히. 나. 아. 가. 슈
 인. 의. 억. 기. 를. 혼. 든. 다.」 「여. 복. 시. 요. 아. 씨. 슈. 인. 나. 으. 리. 처. 서. 는. 요. 스. 이. 병. 환. 으. 로. 호. 여
 서. 노.」 「즈. 리. 에. 누. 어. 지. 내. 시. 던. 러. 인. 티. 자. 금. 도. 별. 안. 간. 에. 글. 려. 을. 초. 리. 실. 수. 가. 업
 서. 저. 편. 방. 안. 에. 서. 누. 어. 게. 시. 니. 이. 다. 음. 에. 또. 오. 시. 드. 리. 도. 오. 날. 은. 그. 저. 가. 심. 시
 요.」 「슈. 인. 은. 비. 로. 소. 얼. 꼴. 에. 드. 었. 던. 수. 건. 을. 써. 이. 며. 늑. 기. 여. 나. 오. 는. 목. 소. 래. 로. 「네
 그. 러. 면. 가. 지. 요. 그. 러. 나. 잠. 간. 만. 기. 다. 러. 주. 서. 요. 가. 슴. 을. 좀. 진. 정. 호. 여. 가. 지. 고. 가. 겠
 소.」 「네. 그. 름. 케. 호. 심. 시. 요. 비. 도. 악. 가. 보. 다. 는. 더. 쏘. 다. 지. 는. 것. 호. 호. 니. 조. 곱. 굿. 처. 거
 든. 떠. 나. 시. 지. 요.」 호. 고. 「로. 파. 는. 밧. 그. 로. 나. 간. 후. 슈. 인. 은. 다. 시. 소. 스. 나. 오. 는. 눈. 물. 을
 억. 제. 처. 못. 호. 고. 실. 심. 호. 고. 안. 조. 잇. 다. 호. 름. 초. 스. 동. 안. 을. 지. 내. 이. 나. 손. 은. 가. 려. 호. 는. 괴. 식
 이. 보. 이. 지. 안. 이. 호. 는. 고. 로. 파. 는. 부. 억. 으. 로. 서. 드. 시. 나. 와. 본. 드. 슈. 인. 은. 그. 제. 야. 비
 로. 소. 호. 트. 러. 진. 땀. 무. 시. 를. 못. 처. 호. 며. 로. 파. 를. 바. 라. 보. 고. 「그. 러. 면. 나. 는. 가. 겠. 습. 니
 다. 그. 러. 나. 잠. 간. 만. 뵈. 읍. 고. 인. 스. 나. 호. 고. 가. 겠. 스. 니. 엇. 던. 방. 에. 누. 어. 게. 신. 지. 요. 가. 르
 처. 나. 좀. 주. 서. 요.」 「안. 이. 요. 관. 계. 처. 안. 습. 니. 다. 그. 저. 가. 서. 도. ……」 「잠. 간. 두. 어. 무
 디. 인. 스. 만. 할. 터. 이. 야. 요.」 「정. 그. 러. 호. 시. 면. 이. 리. 로. 나. 를. 싸. 라. 오. 서. 요.」 슈. 인. 이. 보. 내

라하는 손을 다리고 주인거처하는 방으로 인도함이 심히 아름답지 못하다 생각
 하면서 로파는 할일업서 수일의 호을노 거처하는 방으로 자도하엿더라, 어제
 사늘 저역에 쓰러져 누웠는디 자리옷은 구기구기하야 혼편발치로, 츠내여던자
 고 중병후에 잔신히 정선차리인스름^又치 목어운고기를 버기우에더져있다 싱
 각지안이흔뻘에 문을열고 드러오는 순이의얼굴을 치여다보더니 몸을일어피
 하려 하는수일의 옷은 발셔순이가 좃차와셔 잡헌비되얏스니 순이는 수일의
 옷자락을 두손으로 더위잡고 그압헤 썩러안자 말을일으지못하고 눈물만 흘
 린다 「이게 무슨요스스러운 짓이야」 하며 수일은 옷자락을 썩리치려 하는
 손을 순이는 두손으로 붓들고 띠여달리며 「수일씨」 하며 다시 운다 「글세 이
 것이 무슨모양이야 붓그러운줄도 아지못하고」 「내가 잘못이니 드용셔하야
 주시구료」 예^스 듯기실여 이손을 노아요 안노을터이야 「수일씨」 「수일씨」 「
 그리도 이손을 놓치못할테야 응……」 순이는 죽을힘을 드하야 붓들고있는 수
 일의손을 더욱이놓치 아니한다 두스름의 얼골은 점々 갓가와 수구리고 있는 수
 순이의 머리는 수일의 가슴에 득앗고 수일의 고기는 순이의 여귀넘어로 낮
 라났드, 일평성을 드시 맞나지아나 하리라 밍계하얏던 그녀조의 얼골을이러

듯 ^又가히 접하여 안즈잇스니 아름답던 그얼골은 오히려 변하지 아니하고
 전일 티도를 ^又초와잇것만은 실노 이자리에 안자잇는 순이는 일흠은 순이로
 터 전일 순이는아니로드 내가 엿지하야 그녀조를 더하야보리요…… 너러
 듯 생각하는 수일의어지러운 가슴은 몽중도안이요 현제도안인디 드만순이의
 속이고잇는 목뒤만 닐드보고잇드, 순이는 여러히스동안을 두고 서리여잇던
 회포가 수일을 향하여안자잇스니 거의 어지러운몸이 밋철디경에 일이지안
 이흠이 드형이라, 그녀조는 광체가영롱한 금강석을 구하기위하야 이와^又지
 싹듯한 수일의손을썩리치고 도라보지 안이하얏도다 크고 다시 큰금강석이며
 ……아모리 크고다시 영롱한 금강석이라도 스름의정성다운 모습보다는 가장
 적고다시 영롱한광채에는 싸르지못함을 비로쇼 순이는 세다랏도다, 슬푸다
 전일에 그와갓치 싹듯하든괴운이 지금은 어디 잇는뇨, 진실한전정으로 이몸
 을 보호하던 싹듯한손이 이제는 어나덧업셔지고 어름갓치 식어바렸도다, 혼
 곳수일의 어름^又치 찬손을 두손으로 더위잡고 호읍하는 순이의 슬픈^又음이
 야 어나곳에비하여 말하리요 「어셔가 사라고하야도 가지안이하고 이계 무슨
 모양이야」 「두번도 다시는 봐오려오지아니하고 오날 무저막 봐올터이니 제
 발 내죄를 용셔하여 주셔요 썩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믿음티로하셔사 날로하야

셔 분항시든 마음을 조곰이라도 푸러바리시고 너가 회기호말음을 드러주세
 요」 「예」 스 귀치안어」 「그러면 분항심 믿음으로 따리시든지」 아조 죽여주시
 든지」 「...」 「하며 순이는 더욱 손을 붓들고 미여달린다」 「여간 그사짓것을가
 지고 내가 숨이 풀날 줄아느냐 죽여도 시원치안타」 「그리개 죽여주세요 나도
 당신손에 죽고 심히요 어서 죽여주세요 초라리 죽어 모로는 것이 쯤케스니」 「죽
 을 터이거든 네손으로 죽어라」 수일은 이몸을 손을다여 죽이는 것도 오히려
 손이 더럽다 칭각호일가하여 순이는 더욱 슬픈 믿음을 진정치못한다 「죽어
 어서 죽어...」 너도 한번 내여바린스나 희일것호호면 지금와셔 다시 이런
 짓을호지말고 평성을 호마음으로 웨지내여가지안코 이것이 무슨 어리석은
 짓시야」 「나는 처음부터 당신을 저바리려는 믿음은 업섯습니다 지금사지라
 도...」 「그리기에 자셔호말음을호겟다는 말이지요 죽으라고 말음을호시지요만
 은 그말숨이 업드티도 나는말셔부터 죽은스름이나 다름이업고 속은 다씩어
 셔 호검징호치 되얏습니다」 「그사짓소리는 다 듯기실호니 어셔가 라면
 것이지 웬일이야」 「나는 갈슈업셔요 죽어도 이자리에서 죽지요 그디로는 갈
 슈업셔요」 「순이는 수일의손을 더욱 단々히 붓들며 련々호 믿음은 전후를 칭
 각호여가이업고 다만 목숨보다 중히 녀이는 수일의몸을 썬나지 안코호칭각

호다, 맛춤 문밖으로 발조치 들니면서 로파가 들어오는 괴석이잇슴으로 수
 일은 붓잡히고잇는손을 썬리치려호의 비록 녀조의약호 근력이라도 호 믿음은
 굿게먹고 일신에괴운을 두팔에모아 굿이잡은손은 조곰도 움작이지아니한다
 발조치는 문압해와셔 썬이난다 「글세 이손좀 노아 스름이 들어오니」 「...
 ...」 「순이는 들은체도 호지안코 잇다, 문을열고 들어오려호
 던로파는 의외에 그모양을보고 들여노앗던 호말을 도로밖으로 내여호코다
 시닷으며 영창밖으로서」 「최만경씨가 지금저방에 와셔계십니다」 「수일은 호
 연 진퇴유곡하여 엇지호줄을 모로노모양이라」 「지금곳갈려이니 거괴계시라
 고호게」 하며 수일은 다시 잡히여잇는손을 흔들며 「자」 인제는 노아 손님
 이 왔다는티 쯤케말호썬에 들어야지 어서 노아 손님을 보고와야지」 「그러면
 니가여괴셔 기다리고 안자잇슬터이니」 「물나 잇거나말거나」 하며 수일은
 몸을 썬치고 밧그로 다름질하야나아간다 순이는손을 썬리치는 서음에 그자
 리에 괴운업셔 업드러졌다, 기동업헤 우산을 세워호코 마로곳헤 거러안자
 주인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최만경은 일죽이 보지못호던 절문 안손님이 왔다
 는말을 로파에게 듯고 가슴속으로는 밧셔 분항마음이 불스기호호치 쇼스음으
 는티 초조호마음을 이지못호며 급호 믿음으로는 당장에 쯤쳐가셔 그동정

을살펴 보리라하는싱각도 업지안이흐나 열문간 남아지 체면을 추리고간신
 히나아오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수일의 나오는모양은 그림자도 보지아니하
 고 그방안에서는 스름의 기척이업다 최만경은더욱 참지못하여 「여보 할멈
 흥번만 더가서 엿주어보구료 오늘날은 정말급흥일이잇스니 잠간만 뵈옵고 가
 겠다고」 「글세요 엿제서 가서엿줍기가 어려워요 무슨 이약인지 디단이 은근
 하게하시는모양이야요」 「니가 그러다고 니말전하는디야 엿덜것잇소」 「그러면
 흥번 더엿주어보지요」 하며 로파는 부엌뒤스문으로조 초 수일의거처하는방
 으로가서 문은열지안이하고 「나리 <」 「여기 계시지안소」 듯고되답하는스
 름은 손님부인의 목소리라 로파는 그제야 문을열고 드러다본다 「아이 참 어
 디가셨네」 실로 주인은업고 버키머리에안자잇는손은 오히려 슬허하는괴식
 이 얼굴에가득하여 흐르러진머리를 두손으로 쓰다듬어올니면서 「지금 막 나
 가셨는디요」 「네 - 지금 나가셨셔요?」 「지금 나가시길니 거기손님찌로가
 시는줄 알았지요」 「안이오셨셔요 저기게신손님도 급흥일노 잠깐만 뵈옵고
 가겠다고하시셔 또 엿주러왔는디요 그러면 어디로 가셨슬가」
 로파는 다시 문을 닫치고 최만경에압호로 오며 「지금 이리나오셨다든걸이
 요」 「할멈도 거짓말을 그러케하오 이리오신냥반이 어디가셨겠소」 「아무엇든

지 그방에는게시지안이히요 손님흔듯만 안주게셔요」 「그러면 어디를가셨단
 말이요 어디로가셔 몰니 숨으신게지」 「아이고 망칙하여라 숨으시기는 왜숨
 으셔요 뒤보러나 가셨나요」 하며 로파는 그곳을향하여 추지러간다 이곳저
 곳으로 다니며 어나곳흥곤되도 빠치지안이하고 차조보앗스나 도모지 형적을
 알슈업는고로 다시 도라와 그연유를 최만경에게말한다 최만경은오히려 로파
 의말을 밋지안이하는모양으로 「공연히 나를 속이지말고 바르되로 가르쳐주
 구료」 「아이고 아씨도 망녕이시구료 니가 무슨리히가 잇셔 거짓말을허요
 아마우리나으리는 뒤스문으로향하여서 어디를 가셨나보아요 이할미말을 정밋
 지안이하시거든 뒤스방으로 아씨가 가서보시구료 그리스면 데일시원히 아실
 것을」 최만경은 오히려 지금것안져서 주인이 느오기를 기다리고 있던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싱각하엿던지 흥연 아모말업시 몸을벌떡일어 신발을 발
 뚫헤만걸치고 뒤스방으로 향하여간다 순이는 지금까지 정신을 일코 안조잇
 다가 흥연 찬란흔셔양웃을 입고 분연히 들어오는 미인을 바라보고 속으로는
 짹짹 놀니이며 자리를 곳치여 흥연으로 피하여안는다 최만경은 잠시라도
 잇지못하는 수일의얼굴을 보고조하야 이에 일으러거늘 의외에 덕국흔사람이
 방안에 올연히 독좌하엿는디 자기보다 느히도 젊어보이고 자기보다 아름다

우며 조피보다 리도々잇스며 조피보다. 단정도함을 봄의 미운싱각과 분흔마음이 일시에 치미러 올는온다. 이녀조가 엽해 달니여 잇슴으로 정다운 마음은 모다 이녀조에 쏘다주고 그외에 다른사름은 눈썹리로도 보지아니함이로다. 향는싱각이 울어느며 갈날갓치 독흔마음은 그자리에서 그녀조를 질녀죽일듯시 가슴이 썩고살이 썰니여 체면도 々라보지안이하고 덤비여싸움이 라도시작할듯하다. 순이는 책이 무효하여 붓그러움을 먹음엇는디 입씨에가 리여 늦게피여잇는 싯과갓치 벽그림조에 은근히 가리워있다. 최만경은 압호로와락 나가안즈며 「우리는 처음으로 뵈옵습니다만은 본리 주인량반하고 아르지든가요 일가잔이되심닛가」 미이녀이는스름을 괴로이 구는 최만경의첫죄슈단이라 「바로 친척은 안이라도 친척이나 다름이업지요」 「네 그런데인제야 처음뵈와요 나는 최만경이라는 스름이을시다 여괴주인량반하고는 년리로 지니여오는정리가 여간설면흔 친척보다는 낮게지니지요 卍 피처에서로 손을빌어서도와지니지요 그러나 당신은 엇지향야져 오날이야 맛나뵈겟소」 「네 그동안에는 서울잇지안이하고 노상 시골만가져잇섯지요」 「네 그러섯스니 못뵈왔습니다그러 시골은어디야요 먼데오닛가」 「저…………: 평양근처에 가져잇섯셔요」 「그러면 지금은 어디게심잇가」 「모교(毛橋)근처에서 삼니다」 「네

그러한것을 나는 조곰도 아지못하엿습니다그러 그러나 리슈일씨는 전에나다려말습이 조피는 친척도업고 친절개스피인스름도업고 단지의외로운너흔몸뿐이니 일평성을 가도록 우리는 친척과갓치 정다이 지니자고 하시기에 나는과연 그러흔줄로만 알고밧엇지요 지금 당신말습을 드르니저 어딴그런스닛가 당신갓흔 낭반이 모도 게신것을 공연히 송징을 부리고 숨겨말할것이 무엇이요 그렇반은 엇더흔씨는 그러케 남디히쳐말하듯시 셔허하게향는일이 만아요」 순이는 비로소 의심이 가슴에 가득이 일어는다 부친이일즉이 병원에셔 이상이 보았다향던녀조가 필년 이녀조를보고 향신말삼이안인가 싱각향며또는 손이왔다함도 거짓짜미여 향는말이요 실상은 은근히 셔로맛나 지닌안히로향야금 나보라향는듯시 너눈압호로 너여보낸이 안인가의심향여 전일에 부친의 향시든말습이 적실향도다. 이몸이 이차리에 오날々 오리도록안자잇습이 오히려 불길향리니 차라리 오날은 일즉이 도라감만못향리로다 그러나어나곳에든지 몸을 숨기고잇는 그스름은 이몸이 도라가는 모양을 엿보앗다가 홀연어나문으로 다시 드러와셔 이녀조의손을붓들고 자리를가지향여가련함이몸의흥절을 우셔가며 썩짓고육향리니 오날々々지 그스름을위향야 쓰앗던람이 김이 무리로인향야 기우러짐과갓느니 이몸의 어리셔음이

더욱만도다 「멋처럼만에 이렇케 오신것을 별안간에 일이성겨서 스름이 와서
 지금엿쥬러갓스니 이다음날이라도 다시또 오십시오」 업슈히녀이논지 비웃서
 함인지 가려하는스름으로야금 등을밀어보냄에서 다름이업는 최만경의말을
 슨이논 분흔마음을 여지로 혀를썩물고 참으며 「너모을이안져잇셔々 당신도
 불일이 게신모양인디 오히려 방해가되여서 불안호이다」 「안이올시다 천만
 에나는 일상와셔 잇다섭히하는스름이니셔 아모관계가 업습니다만은 당신은
 멋처럼오셨다가니모 안되엿습니다그려」 「별말습을다호심니다 이다음이라도
 또 뵈올썩가 잇겟지요」 하며 슨애논 일어슨다 「아이고 가시렴닛가 지금은
 비가 파이오지는 안습니다만은……」 「밧게나가다가 인력거호아불너셔라고
 가지요」 「아이 그러면 안녕이가셔요」 두녀즈논 서로 미워하며 서로분호여
 갈날가흔마음을 가슴에 품고 미구에 선전조칙이 두스름스이에 나려질듯호엿
 더라。수일은 두녀즈의 괴로움을피호여 비를 무릅쓰고 이웃친구의 집으로가
 셔 늦도록 바둑과 장기로 해를보내고 불결썩에 림호야 비로소 조괴의 집으
 로 발썩을 향호엿더라。이날 수일은 아츰도 입에다이지안이호고 종일동안을
 변민히지니다가 이제논 그녀즈등이 모다 도라가고 잇자아니호리라호야 의심
 처아니호고 뒤문을들어스며 「할멈〈 저녀다지엿나 아이비급하」로파노반

가이 마로々셔 나려오며 「아이고 어더를 가섯々습닛가 약가부터엿더케 차차
 다니엿논지 모로겟습니다 오날은 아침도 아니잡슈시고 오작시장호실나구호
 어져방으로 들어갑시요 진지상가지고 올라가겟습니다」 수일은 전역을먹고
 조호야 방문을밀고 들어스니 등잔불아리에 스름의그림즈가 빗초인다。수일
 은 의외에 스름이안자잇습을보고 자셔이 슬피니 이논 곳최만경이라 그러나
 벽을향호고 도라안자잇스며 말이업다。수일은 홀연 눈썩이 썩푸러자며 그발
 썩로 다시나와 조괴의거쳐호는 뒤스방으로 도라가며 로파를불너 저녀을그
 리로 가져오라호며 밥상이 다 맛도록 반다시 죠초오리라싱각호엿던 최만경
 은 이윽도록 오논괴식이업다 수일은 도로혀 다형이녀이여 먹기를 맞친후 아
 찰부터 피로호엿든몸을떼이고 영창에 빗초이논 월식을향호여 담비를 피이고
 잇다。곳호여잇지 못호여함은 안이로뒤 놀납도록 파리흔스름애의 얼골은 완연
 히눈에 스못치며 애원(哀怨)호던음성은 머리우으로지니간 모괴소리와 갓치
 오히려 귀안에 남아잇다 지금에도 녀의집을 썩나지못호고 어나곳에 몸을숨
 기여잇논가호며 바름이일이날썩마다 고기를들어 살피보논수일은 창압해셔
 々잇논 오동나무입시가 흔들니논 그림즈를 의심한다。수일은 영창을 열치고
 셔늘흔 섯속하날에 걸니여잇논 초성달을 오동나무듬으로 바라보니 슈심의싸

인 수일의 얼굴은 희고 푸르게 빛초여 더욱 근심이 가득하여 보인다 「여보리 슈일씨」 임의 흐집안에 그저잇슴을 이져바린 최만경의 목소리에 잠잠 놀녀 여 바라본다 평일에는 스름을보면 우음을 띄우고 추파를 보녀이더니 이제는 눈썹리는 우으로 첫키고 입살은 별々 썰린다 슈일은 마음으로는 은근히 고이 히녀이며 「아 입덕씨지 게섯슴디가」 「네잇섯슴니다 오전부터 나는 당신을 기다리고 잇섯슴니다」 「아 그러흐줄은 몰났구료 되단이 실례하엿소 그러면 무슨 급흔일이 게신게구료」 「급흔일이업스면 당신덕에서 좀 기다리자못하오오?」 하며말흔소리가 점々커져나니 겁이나는듯시 놀녀이느듯시 수일은 다만 최만경의 얼굴만 쳐여다보고 말이업다 「잘못하엿소 니가 잘못하일도 아오 자미있게 잘 노시느것을 이 못된년이와서 파흥을식여 들엿스니 참 잘못하엿소 스름이 아모리기로 이리흐수야잇소?」 하며 노기가 가득눈으로 수일의 얼굴을 원망하느듯시 드러다본다 수일은 최만경의 동작을 웃는얼굴노 바라 보며 「별안간에 그것은 말슴이요」 「지금와서는 당신이아모리 감추려고하셔도 쓸데업는일이야요 절문사나회와 절문계집두사람이 아모도업는 방안에서 밧삭 부터안자가지고서 올엇다가 우섯다가 죠롱을하엿다가하니 그만하면 되 강눈치야 모를스름이 어디잇소 나도 저편마로에서 동정을 디강 짐작하엿서

요 흐두살먹은 어린아기가 아인바에야 그만눈치야 아모리기로 모로겿소? 그리고 당신이 박그로 나가신후에나난곳 이방으로 들어와셔 그녀편네를보았셔요」 어나동리에서 강아지가 짓는가하던수일도 이에 이르러셔는 무슴말이나오는가 귀를기우리고 듯는다 「그리고 니가 저세히 무려셔 당신호고 그녀편네호고 엇더흐스이로 지녀는것인지도 다 알앗셔요 그리고 나중에 못지도 안이호는말씨지히셔 알으켜줍디다. 오날이야 당신에 죄조가 얼마나 죠흔지 알앗소 그러케 어엿쁜녀편네를 은근히 엇다가 숨겨두고 혼즈 저미잇게서리 지녀면서 남보기에는 그런등스에는 아조 범연흐체하지요 엇체면 그토록 시침이를씩 썩이느지 당신슈단은 인제알겿소」 「그런 되지못흐말은 그만두오」 「아모렘 입으로는 저러케 점잔은체하져 거괴들어서도」. 별셔 저것좀보아 그녀편네성각하노라고 아모정신업시:..... 그러케도 못잇겿소. 되답지도안 이호며 드른체도안이호고 다만 달빛스을향하야 담빅연피만피우는 수일의얼굴을 최만경은 이욕도록 드러다보기를 마저안이흐다 「여보 수일씨 그러케 말도 안이흐것이 무엇시오 그런미인을 보코났스니 나뵈흔것은 다리고 말도 놓기가 실치요 그런줄은나도 다 알앗셔요 그러하기에 니가 길게말도안이 흐러이요 그러나잠잔 물어볼일이 잇스니 그말이느 되답하여쭈서구려」 수일

은 비로소 눈을 최만경의 얼굴도 향하며 「무슨말이든지 어서하시구료」 「나는 당신을 죽여엿고싶어……」 「무엇이야……」 「당신도 죽이고그게집년도죽이고 그즈리에서 나도 죽어바리고싶혀요」 「그리도할슈업지 그러치만은 내가무슨 사독으로 최만경씨의손에 죽는단말이요」 「사독이요……」 「그러서 그사독을 모르시겟소……」 「엇던입으로 그런말이 나오시오 아이고 썩썩도하지」 「이게 무슨소리야 썩々이라니 어! 고약하고……」 「고약이라니 그게무슨말씀이요 너모 업슨네이지마오」 하며 최만경은 지금껏 참았던 원통흐마음이 일시에터져서 슈건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훌々누기고 울고있다. 수일은 말이업고 묵々히 안자서 동정만 살피고있다 「당신은 나를 그닥지나미워하신단말이요 무슨사독으로 그러케 미워하시는지 그사독이나 좀압시다 그러 다른것은 모르드리도 그사독은 알고야 말터이니사」 「네가 언제 최만경씨를 미워하엿단말이요 나는그런일이업는데」 「그러면 엿지하여서 나다려고약하다고 말씀은하오」 「아 엿지하여서 고약하지안단말이요 그디에게 네가 죽을것이 무엇이요 나는 죽을 죄를 최만경씨에게 지은일이 업는디」 「최만경은 두볼에 솜든것같은얼굴을 지여가지고 고귀를 좌우로 흔들며 「잇고말고요 사실이 화잇지요」 「최만경씨 혼조잇다는말이야 소용이잇소」 「나 혼조만 알고잇

스면 그만이자유 니마음으로 한번밧은후에는 그디로 실행을하시지요」 「그러면나를 죽이겟다는말이지」 「네가 못죽일줄아오 좀 견디보시오」 「네 그러케하시요 그러면 네가 곱게안자서죽기를기다리지요」 하며 수일은 레사로이 대답한다 서편으로 향하여기우러져가는달은 오동소이로 빛초이는데 슈은갓치방울방울빛초이는 밤이슬은 방안에서지 사람의몸을 침노한다 수일은 영창을닫고 남포의불을 도도며 다시 최상우에게서를 드러다보며 「발셔 밤이 미오 느졌스니 그만 짐으로 도라가시구려」 「너무 불안하오이다 그도록 생각하여주시니」 「느져가는줄을 혹시 모르실가하여서 세우쳐 드리는말씀이요」 「엇던든지 고맙소 그러치만은 앓가 낮에 왔던사람갓흐면 느져가는 염녀는하여주시안이하시지요」 하며 수일을 미웁게 녀이는눈으로 한참이나 드러다보다가「디체 그체 웬게집년이요……」 이젠브터 조와지니든스름이라지요 그모양을보니서 여염집게집도 갓지안코 노는게집도 안인디 당신은 디체가 이상한물건을조와하시는구려 그러나 여보 그체집이 임조잇는곳이지요……」 「망령되이하는말을 대답지안이하리라하고 할구하엿던 수일은 마지못하여하는말도 「글세엇더한것인지 닐들알수잇소」 「그런게집을 다리고 지내면 즈미가 더욱서글々々하시겟지요만은 그디신에 한번몹시 속을써가잇슬겜 오날날서지 쉬쉬 숨

가고 있는것도 나는 다알았소 무슨낫으로 당신이 남다려말씀을 하시겠소 그
 렷치만은 그중미워하시는니가 알았노았스니 당신마음의 오작 분항시겠소 당신
 이나를 일상 구박하시듯시는도 인제는 당신을 구박좀 줄걸」듯기를 다하니
 수일은 실쇼항기를마지안이하며 「혹시 저녁을 먹지안이하여서 헛것이 보이는
 게구료 밋친스름 중얼거리듯말제는」「네는 밋치지요 누가 는를이렇게
 밋치게하여노았소 내가 밋치기는 오날날부터 밋쳤소 당신집에 온후부터 내
 가 밋쳤스니 전과갓치 성혼사람으로 밋친병을 곳쳐서 보니쥬오 항며」「최만
 경은 수일의압호로 무릅을 넘어밀어안지며 쥬곰도는가려는 괴석이업다 수일
 도조차서 몸을점점 아리로나려안는다 최만경은 구지 쥬차는려오며 「그리고
 니가 혼마디 당신에게 물어볼말이잇스니 당신마음속에 잇는티로 말씀올히야
 지 쥬곰이라도 거짓결노 쥬며내면 안되오」어서 말씀을하시오 무슨말이던지
 그러케 실음업시 에스로이 알고 말하시지 말고쥬니가 못는티로 티답
 항서요」「아무렴 그러치요 못는말에 티답안이항겝소」그러면 내가 말씀을
 항겝소바른대로쥬 대답을하여쥬시요」「수일씨 당신은 나를 귀치안이하여
 서 못면디서지요 는도 당신속을 류리붓치고 드러다보듯하고잇지요마은알면
 서도 당신을 귀치안케겝고 쥬차다니는것은 진정으로 당신을 잠시라도 이쥬

수가 업서서 그러쿠료 속담에 일은바 짝스랑이라하는것이요 는도 감안이성
 각항면 엇지하여서 내가 이렷케어리셔고 미련항가항지만은항로라도 당신의
 일골을보지못항면 못살것갓호니 그를엇지호오 이런 미천계집이라도 당신을
 자는서는 못이저하는줄을아시지요」「안다면알고 모른다면 모른것이지」「남
 은 죽을 힘을 다드려서말하는대 그러케 힘흔폰어치 드리지안코 말하는데가
 어티잇소 그러키에 는는 골이 더는쥬겝서」그러면 엇지하라는말이요 어서
 항든말이 는 다맛치오」「최만경은 방금에 티성똥곡이 나는듯말어를노 수일을
 바라보며 「니가 멍히 동안을 두고서 여러가지로 간절이 말씀을 엇쥬어도
 항번도 드러쥬지안이하고 이리핑케 저리핑개만하니 본리붓터 나를 실여하여
 서 그러항신줄은 모르코정말스정이 그러항가항고 입디서지 속았지요 본리당
 신성품이 괴벽하여서 너편네등스에는 눈을뜨자안코 심히 범연항랑반인가항
 고 나혼즈마음을 위로항고지니면서 언제던지 당신의마음이 도라슬날이 잇슬
 가항였더니 오날보니사 그게다 모도 거짓말이고……」항며 수일의 무릅을
 이로 악물고 쥬집는다 「아야 이게 무슨짓이요 압픈데」항며 최만경의 손을
 쥬리치면 더욱갓가히 덤비여 두손으로 번가라가며 다닷치는티로 쥬집어다린
 다。수일은 무례히 덤비는 최만경의 두팔을 움작이지듯호도록 혼애 최만경

은 고기를 숙이고 덩비여 수일의 다리를 물어 써인다 수일은 기운을 다 할야 물
 니 치려 홀죽 더욱 죽을힘을 다 할야 수일의 옷짜락에 미달니며 누기여운다。 이
 에 일으미 수일도 다소 최만경의 동작을 미라히 녀이여 또는 분노할 생각 이 업
 지안이 할야 최만경의 미여달인 몸을 스정업시 써리치나 오히려 써나지안이 흠
 으로 수일은 더욱 분노함을 억이지 못 할야 목즈의 노기를 가득히 써우고 썩지
 는 듯시 최만경의 일물을 내려다 보며 「티체 녀편네의 형실노 이케 무슨 광편 할
 짓이요」 「.....」 「그리고 어서 짐으로 도라가시오」 「안이 갈
 터야」 「안이 가.....응 그러면 녀일 못타는 여기 문안에 다시 말을 드러 놓지 못
 하게 만다라 노을 터이니 그러 할 줄 아오」 「웨 못와요 죽드리도 나는 올 터이야」
 「지금 사자 녀가 참 사고 잇섯지 마는 인제는 그 터로 녀바려 들 수가 업스니 사
 이런 말을 (찌레만) 이에게 말삼 이야기 할 겠소」 최만경은 그 썩야 비로소 눈물
 에 져진 일물을 들며 「에 마음 디로 할 시요」 「.....」 「찌레만
 이에게 말을 할다 시니 말을 하면 엇지 할 터이요」 수일은 이를 악물고 최만경의
 일물을 썩러 지도록 바라 보며 「나는 귀가 막혀서 말이 안이나 오는 구료 찌레만
 이가 당신에게 엇지 되는 스름이요」 「수일씨는 찌레만이가 녀게 엇더케 되는 스
 림으로 아시오」 수일은 최만경의 말하는 입을 주먹으로 찌러 처치고 삼은 마음

이 불이 듯 혼다 「수일씨는 찌레만이를 녀 남편으로 알고 할 시는 말 술인지 모로 지
 요만은 실상은 그러치 안소」 「그러면 무엇이 란 말이요」 「언제인지 당신 씨 말
 심 할 일도 잊지 요만은 나는 우리 부모의 빚으로 할야서 면당으로 잡혀 갔다가 나
 종에는 그 만이 모양이 되었지만은 바로 말 할 것 같으면 찌레만이는 녀게 원수라
 고 할야 여도 관계치 안소 남들은 나 다려 찌레만이 할고 녀 외라고 만 할 스름도
 잇스니 나 마음에는 아모런 처도 안이 할게 생각 할고 잇소 그러 할니 사 녀가 조와
 할는 량 반 할고 녀 마음 디로 밋치든지 조와 지 녀든지 아모험의도 될 것이 업습니
 다」 수일씨 아모 조록 찌레만을 보시거든 최만경이는 녀게 홀녀서 귀치 안케
 일상 짜라 다니려고 할니 우리 집게 짐 할 인으로 라도 다려 갈 터이니 그러 할나 고 말
 습 할야 주시요 그러 할야 여 주시면 나는 일평생을 당신 덕에서 할 인으로 라도 지
 녀 겠소, 당신은 생각 할 시기를 찌레만이에 게 이런 말을 할게 되면 녀가 겁을 녀
 이고 삼작 놀낼 줄이나 아시 교서 할 신 말 습이 지 오만은 나는 원편 할나 삼작이
 지 안이 할오 (무슨 일이 든서 한번 마음에 먹 엇던 일은 시험을 히 보아야 할는 것이
 니 사 당신 마음 디로 할야 보시오 그러 할나도 당신 소문을 모다 퍼느려 놓 겠소
 남편 잇는 집을 상 관 할야 가지고 밤낮으로 두 스름이 손목을 붓들고 이리저
 리 단 인다고 말을 녀 엇스면 누가 더 낮치 썩스 할 겠소」 「아모리 속이 좁은 녀즈

기로 그대 무슨당치못할말이요 스나희하고 너편네하고 서로안자셔 이약이만
 하면발셔 상관할였다고 말하오 그리고 절문너즈면 반다시 남편이 잇는법이
 요 아모리 시귀만코 소견좁은 너편네의말이지만은 그러할말은 좀 정신을 차
 려셔 말을하오 「여보수일씨 이럿케 좀 바로안지시구료」 수일의손을 잡고
 의글미 수일은 잡은손을 썩리친다 「이것은 웬일이야」 「귀치안치요」 「물론이
 지요」 「나는 이후부터는 더 귀치안케하여 드릴걸 지금 당신이 무엇이라고 말
 습하엿소 시귀만은게집이야요……당신이야말로 정신을차려셔 말을 조심하
 시오 당신은 스나희가 아니오 스나희는 스나희답게시리 눈스정으로는게집이
 잇슬것갓흐면 광명정디하게 잇다고하시지 공연히 그럿케 발명할실것이무엇
 이요 나갓흔게집은 당신이 아모짓을하든지 이리느니 저리느니 말할권려도업
 고 아모리그런말 한마디라도 할권리를 가지고심히도 그권리를 당신이 주지
 아니하시니서 혈수잇소 그런데당신은 무엇이 쓰리여셔 나를 숨기시려고의
 를쓰시오」 너가 진정으로 말습хма디하오리다 당신이 아모리 박게다가 열벽
 스름의게집을 두고셔 거기 밋쳐셔 나갓흔것은 조곰도 생각지아니하신다고
 나셔지 당신을 의디할게집도아니오 또는 당신에게 크게 관계되고 허가 밀철
 일을 소문녀여논다하기로 너소원이 성취할것도 아니니서 당신은 엇지생각하

시는지 모로지만은 나는 그닥지마음이 고약할게집은 아니올시다. 세상에다
 가 소문을 녀여노아서 당신의낫출 싹가뚝켓다고 말습흐것은 단지이자리에서
 잠시 미운생각에 임으로만할말이지 실상 마음으로는 조곰치도 그런마음이
 잇셔하 할말습은 아니니 그런줄노 알으시고 후시 과도히할말습이 잇드리도
 녀니 용셔하여주시요 이럿도록 너가 스죄합니다」 하며 최만경은 허리를 굽
 히고머리를 숙이여 수일의게 스죄한다 수일은 엇지하면 조홀고하노모양으
 로 다만 미간을 찻푸리고 머리만 극는다 「그리고 다시 너가 수일씨에게 소
 원이 흐가지잇소 다른것이아니라 당신이오날々셔지 가지고게시든 마음은 그
 만 녀여바리고 남의스정파 인정을 좀아라주는 라수일씨가 되여주시기를바라
 오 당신말습хма디에 나도 좌우간마음을 결단할것스니 조곰이라도 은휘할실
 것업시 생각하시느니로 말습을 하여주시요 너말습을 알아들으시겟소……」
 하며 수일의얼굴을 바라느것이 잇는듯시 쳐여다보고잇다 「지금다셔 서삼스
 럽게 말습을하지안트리도 내마음은 당신도아마 겁히 아시겟지요 오날々셔지
 여러가지로 말습흐일이 만치요만은 당신은 혼결갓치나를 시려하시셔 나하는
 말습이라면 좃츠가며 불청을하시니서 녀인들 억지로 엇지할수잇소 당신이
 나를 그럿케맛당치 못하게하시니 나도 생각이잇지 평성을두고 당신에게 수

치만 당호고잇겟습니가나도 아조단렴하야버리지요 제가제말하논 것갓히셔
 엇지들으실지논 모로지요만은 나도 아모리쥬고마호게집이라도 과이 결단성
 이 업지안이히셔 호변결단호면 다시논 요동호는법이 업더니 당신싱각하논
 마음은 아모리결심을하야도 다시 싱각이나고 싱각을마차하다가 못득々々보
 고심히셔 결단이허스가되너 내가 내싱각을하야도 계집이라도 그것게마음은
 약하지아니호였는디 엇지하야셔 이다지 어리석고 못났논고호는싱각이 남니
 다그려 내가 별반남에게 홀니는일이 업논대 당신에게는 아모리싱각하야도
 홀닌것이 분명호구료

그러하니싸 다만내마음만 그러호출 실상으로 알아주시면 내소원은 그만하야
 도 다 풀닐듯호오 이도록 급히 마음을 먹고 잇는스름의 마음을 당신은 쥬곰
 도 싱각하야주시안이하시니 실상을싱각하면 당신과 나와는 성질이 맞지안이
 하여 그러호것이니 엇지홀수가잇소. 당신에게 그러케수차를 당호면셔도차
 마 잇지못하니 그마음이 얼마나가공호오 가령 나는 마음에 불합호시드리도
 그간절호심정은 가히 싱각하야 쥬실만호원다 그리고 당신으로 말을호드리도
 결단코 그만 정경을 물으실량반이 안인줄은 오날낫에보고 쥬세히알앗소. 런
 이라호는것은 남녀가 다를것지업고 피차가업는것이요 남녀가셔로 다쥬쳐마

음이잇셔셔 피차에 정은 잇스면셔도 그뜻을 무삼사정으로던지 일우기가 어
 려우면 설으니 절거우니호는대 항차쥬스랑으로 쥬혼자그스름을 싱각호고 스
 모호는 그마음이 엇지호겟나 싱각쥬호야보시오 약가말이 내가당신을 쥬이고
 도 심다는말이 나오지안이호겟는가 다쥬쳐 이세상에스름으로 싱겨는셔 당신
 을위하야셔는 노예라도될것이오 당신의말습흔대문 들을지경이면 내목숨이
 업셔져도 앓갑지아니호다고싸지 싱각호오 그런 가련호스정을 싱각호시면 아
 모리 밍게보시는 스름이라도 쥬곰치라도 인정을두어 쥬실듯호오. 나도 당신
 에게 호로울듯호일일은 바라지안소 다만 나의가슴의 시원이 풀어질말습 호마
 디문호여주시면 쥬케스니 지금싸지 엇지호여 지내여왔던지 쥬가이 알던정분
 으로 호마디문 말습호여 쥬시구료」 이렇듯 간절이호는 최문경의 말소리는
 점점떨니여 평일의목소리가 업셔지고 진정호마음으로 슬피호오는 우름소리
 와 다름업다 최문경은 수일의 이말호마디를들으면 괴천원의차용중셔라도 앓
 기지아니호고 불속의너허살나바릴 마음이니 그숨소리는 천축호고 그얼골은
 푸르러 지금에 그품속으로 비슈를내어 쥬쳐코자 홀쥬시 수일은 심중으로 놀
 니기를 마지안나호다 「최문경씨의 가슴이 시원이 풀닐날을 호마디호여달니
 호니 엇더케 물을호면되겟소」 「그말습은 당신이 엇지호시는말습인지 나는

알수업소 조리가 할말을 남다려 무러보니 남의속을 누가안단말이오」 「그는
그러치만은 나도 알수업는디요」 「그게말씀이오 무엇이오 일상 당신은 요리
조리 핑계만하노라고 하시는데말씀이지 나도 알수업다난말이되오 당신에게향
할니마음을 시원하게하여주시라면 다른일이야 무엇잇소 그만하면 알일이지
요」 「응 그러면알어듯겟소」 「알어볼으섯거든 어서말씀하여주소」 「최만경씨
의하난말은 좌우간 잔절흔심정을 살피달나하고 또난 그마음을살피고 잘……
알어듯도록 말하여달나는말이아니요 그러하니 그말이 티단이 어렵구료」 「아
무엇케든지 말씀하여주시구료 니가슴이 시원하도록만 말씀은하여주소면 좋
치오」 「그러하기에 더어렵지안소…… 무엇이라말히야 당신의가슴이 시원할는
지」 최만경은 속을들어 가슴을 가르치며 「니 이가슴속을 자셔이문 살혀주시
면 너가시원하겠소」 「당신이 니게 쓴마음은 정말 고맙소 나난 당신의그런
듯고마운마음을 평형에 이져바리지 아니하오리다」 「수일씨 정말말씀이지오 예
……여보시요」 「물론그런치오」 「진정이원다」 「글세넌마라요 니가 거짓
말을 할리가잇소」 「그러면 그증거를 보여주세요지요」 「증거요……」 「예
입으로만 하시난말씀은 내가 믿을수가잇소 당신이 그토록 말씀은실제난 조
곰치도 마음에 업난일을 말씀하시겟소마는 그러하마음이 깨실것모호하면 그러

한증거가 잇슬터이니싸 그증거를 보여줍시사 하는말씀이올시다」 「증거를 보
여드릴만하면 왜 아니 보여드리겟소」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세요하시는 말씀
이오」 「엇더케 증거를 보인단말이요」 「당신이 진정으로 증거를 보여주실성
각만잇스면 그일이야 여러가지로말이 잇지요만은……」 「서으로 빗긴달
빛은 이슬을 먹음에 마당가온디 가득흔디 방안에서 리수일과 최만경두사람
의수작은점々입혀잔다.

데삼장 惡夢(악몽)

이심여잔되는 집안에는 로파흔사람이 살님을주장하고 뒤스방에 고요하게 게
쳐놓는 리수일은 고요하누어 천스만님이 실마리엿키이듯 흥중에서 비화하는
디 홀연 귀에들리는것은 너편네의 호곡하는소리와 너편네의 닷도는 소리가
요란하다. 수일은 후서 삼이안인가 의심하야 벽기에서 머리를들고 귀를기우
려 쇼리나는곳을 향하고듯는다. 그소리는 점々갓가히 들리며 서로 닷도는모
양도 더욱 심하야 들리는디 자로 것과다름질하는 발즈최가 수일의 거쳐하는
방향으로 갓가히 나아온다. 수일은 더욱 고이음을 의이지못하야 덩고잇던
침구를 벌쳐로 밀쳐더지고 몸을일너홀찌에 영창문 두쪽이 일제히 활짝 열어
져기여지며 너즈두사람이 서로부들고 업드러지며 잡바지며 방안으로 들어온

다. 앓짜 놀니여 바라보니 흐려지는 머리는 훗터러지고 저고리와 치마는 물속에 빠져 젖든 스름갓치 비에 젖어 랍수가 두스듯는다. 그녀지는 홀연 리수일의 얼골을 보더니 깃거운 빛과 반가운 마음으로 「아이고 수일씨」 하며 수일의 압호로 덤벼려 놓는 것을 양복입은 그녀가 뒤를 달녀들며 웃고 뒤를 잡아 끌어 다린다 그녀지는 슬픈 목소리로 「아이고 수일씨 이를 엇지 할면 좃쇼」 하며 구완하여 주기를 바라노 모양이라 수일은 부르지스노 그 목소리에 뼈가 녹듯듯시 감동된다. 최만경은 순애의 웃기를 흘손으로 더위잡고 수일을 도라보며 「여보 수일씨 당신이 그러케 더단히 알고 있던 정든 계집이라노 것이 이 계집이요」 흘손으로 노는 다시 순애의 머리치를 잡아서 얼골을 치여들며 「이 계집이지요 수일씨가 일상 못니저 놓는년이 이 계집이지요 아이고 니가 숨이야 니원통호스 정을 엇다가 다 놓나 그리셔 이 계집이 당신마누라예요」 「내마누라면 엇지 할라노 말이요」 순애는 압품을 억이지 못하여 부르지스노 목소리로 「아이고 수일씨 스름 좀살녀주오」 최만경은 소리질은 순애의 목뒤를 두손으로 에워잡아 방바닥에 엎쳐놓코 「아이고 요란스럽다 이것아... 너보마 니가 수일씨에게 먼저 할 말이 티산갓치잇스니 조용히 여기 엎터셔 놓는말이노 듯고잇거라」 하고 다시 수일의 얼골을 피발이 가늑호복자로 바라보며 「여보 수일씨 이 계집

년이 똑 녀호모양을 당신외몸에 부터잇스니저 니가 하는말은 조곰도 당신이 들어 주지안이하는것이저 당신은 아모리 이 계집을 못이저하시셔도 이 계집은 본대당신을 헌신코치 녀여바리고 다른사름에게로 시집을 간 인형을 쓰고셔도 짐성문도 못호계집년이 아니온닛가 그럴무정호계집이 어대잇겟소노도 자셔히 온다오 〇 당신도 스는히답지못하시 아모리 어엽버셔 못이즐계집이기로 그 마음을 밧지아니하고 다라노 계집년을 밤낮잇지못하고 간절이 생각하시 어디 더장부라말호겟소 그리도 당신마음에는 스는 흰듯십소노호호면 그러흐년은 혼칼에 두도막을 녀여바리지오」 순애는 엎쳐져진몸을 일녀놓는 최만경에게 놀니여 소리흐마디 질으자못흐다 「여보 수일씨 당신에게 니가 하는말을 당신은 일상대답이 스름의도리가안이니 의가안이니하고 점잔케거절하시온엇소 그러케 도리를 직히고 의라를 존중하게 아시는량반이 엇지 할여셔 이와코치 음란호계집년은 은근히 살여두고 보심닛가 그리셔는 니게대하야셔 하시든말슴도 거짓말이요 당신도 스는 회의일이온인대 엇지 할여셔 이 계집을 쳐단하시 온소노도 결단코 다시는 당신에게 무슨말을은이 할터이니 니압혜셔 이 계집을 좌우간 엇더케든자 쳐단을 할여주시요 만일 그러치아니하면 첫지 니가 용서치은이하겟소 수일씨 웨 감은이 온젼소 당신도 스는 회의일코호면 니눈음혜

서 이런계집을 혼칼에 썰너 죽이시지. 만일 당신이 혼칼에 목을 버혀 죽이자 못하드라도 잘드느 칼을 니가 드릴터이니 어서 이것을 가지고 썰너시오」 최만경은 품속으로부터 광치가 황황(晃晃)히 비슈(匕首) 혼기를 니여 놓는다. 수일은 놀나운 마음에 몸도 능히 움작이지 못하고 다만 살피가가 득흔 최만경의 얼굴만 바라본다. 순이는 거의 말근정신을 일컫는지 업더져서 숨소리도 들리지 아니한다. 「자! 니가 이러케 놀스고잇슬터이니 목아자든지 가슴이든지 아모리나 마음뒤로 혼칼에 썰너 죽이시오」 웨 그러케 어름어름호오 칼잡을줄을 몰나서 그림넛가」 최만경은 칼날을 우으로 향하고 칼등은 아리로 향야 다섯 손가락으로 칼자루를 움키여 잡고 수일을 향야 주며 「자! 이러케 잡고서 썰느면 됩니다」 「.....」 「그리도 당신은 이런계집에 미련혼정이 남아잇서々 죽여바리기가 앓가우것인게구려 그러면 니가 당신디신에 죽이올잇가 디번에 죽일터이니 잠간보고게시오」 말이 다맛지못호야 거울빛갓흔 광치가 번뜻빛초이며 칼날은 발져 순이의 헛터져나려온 머리털스이로 들어자다 수일은 그모양에 앓씩놀니여 일어나 말나려할썩에 순이는 기운을 다호여 벌떡 일어나는 셔음에 칼날은 빛나가 공연히방바닥을 썰넛더라 순이는 소리를 들히질으며 「아이고 앓저하나 수일씨」 호며 최만경의 손에 띠여달니여 셔로

밀치고 셔로 잡아다리다가 두녀조가 혼가지로 붓들고 방우에 쓰러진다. 순이는 최만경의 두손을 붓들고 방우에 번드시누어 급히 소리를 지르며 「여보수 일씨 어서々々 그칼을집어서 나를 썰너 죽여주시오 당신의손으로 나를 죽여주시오 당신의손에 죽기가 니원이올시다 제발어서 죽여주 당신에게 죽으면 원이업겔소」 이와가치 워티흔 광경을 눈압해서 보고잇는 수일은 감히 손을 들어말니기도 어렵고 감안이안져셔 수々 방관호기도 어려운일이라 공연히가 숨이요란호며 민망함을 이기지못호는디 두녀조의 싸흔은 점々 긴호여지며 두스름스이에서 셔리스발가치 번적거리는 칼스빛은 흑은돌호며 흑은나져셔 좌편으로 쓰는 점々 홀々(閃々忽々)호여 흡스히 혼갈구리 쇠달빛이 바람에 혼들니는 버들가지스이로 나라났다 다시 숨었다함파갔다 「여보수 일씨 당신이 나를 남의손에 죽게시리 니바려두고보고게심니가 니가 이계집의손에 죽는단 말씀이오닛가 목숨이 앓가운것이아니라 이계집의손에 죽기는 원통호구료아 「원통히!」 호며 순이는 호터러진머리를 흔들며 스지를 온전히 두지안코 입으로는 선혈(鮮血)을뿜는다. 두녀조의 워티흔 디경을구호고호는 수일의 가슴은 수레박취갓치 돌건마는 그몸은 철석으로 결박호것갓호여 움작이려호나 혼고락호마디도 요동치아니호고 소리를지르고호는 목이막히여 숨결도

크게 나오지 아니한다 근력도 이제는 다진하고 목숨도 거의 위태하여 순이는
 간신히 입밖게 나오는 목소리로 부르지진다 「여보 당신이 나를 죽여 주지안이
 할면 니가 즈살이라도 할터이니 여보수일씨 그칼을 집어서 니손에 쥐여 주시
 요 자 어서 이손에 수일씨 마지막 순이의 소청이올시다 어서 칼 좀 집어 주어
 지며 수일의 압박바닥에 뺏치인다 순이는 얼푸시 몸을 뒤여 그칼을 손에 잡는
 다 최만경은 칼을 빼앗기지 안이 할 마음으로 다시 순이의 뒤으로 들녀 드는 것
 을 혼은으로는 최만경의 몸을 물니 치며 칼날을 거구로 하여 목에 다이고 힘을
 다하여 두손으로 찌르는 기운에 칼날은 임이 반이나 들어갔고 선혈은 림리하
 여 칼자루로 넘쳐흐른다. 수일은 흘연 눈이 캄캄하여지고 마음이 살아 지는 것
 갓흔디 아즉 목숨이 남아 있는 순이는 수일의 무릅을 밟들고 다시 눈물을 흘린다
 「이제는 니목숨은 업서졌고 나난 죽은 스름이올시다 이디경에야 니소원 한번
 못들어 주실 것이 무엇이오 여보 수일씨 당신의 손으로 남아 있는 니목숨을 쓴어
 주시요 그리하여 주시면 나는 당신에게 용서를 받은 줄 알고 죽을 지라도 디하
 게 가서 눈을 감겟소. 지금까지 지엿는 죄는 오늘날 다 용서하여 주시고 당신의
 마음도 모다 푸려 주시요 내가 이러케 알고 죽은 후라도 당신이 만일 용서하여서

주지 아니하시면 죽어도 원이 되고 후성에서 다시 터어나 드리도 이원이 풀리지
 아니 할겟스니 이혼목숨 쓴 것을 불상히 보시고 혼마디 말씀으로 용서하여 주
 시요 당신의 입으로 나무아미타불이나 불너 주시고 혼숨에 니목숨을 죽여 주
 시면 이성에서 싸엿는 혼이 다 푸려지고 웃는 얼굴로 디하에 도라가 겟습니다
 선혈에 져진 칼자루를 목을 디밀어 수일의 손에 쥐여 주며 순애는 어름갓치 식
 어가는 ๞口에 수일의 손을 익그러다가 정다이티인다 「나는 인제 죽어 버리면
 다시 이세상에서 당신을 뵈을 수가 업스니 죽어 가는 스름을 다시 살녀 주는 줄로
 생각하여 주시고 이즈리에서 다만 혼마디만 용서하노라고 말씀하여 주오 니목
 숨이 살아 잇슬썩는 혼업시 미웁게 보섯지 오만은 죽어 버리면 그만이올시다 그
 러 이성에서 지은 죄와 혼은 그만 살아져서 후이 되어 부리 겟습니다 나눈 이
 러케 전죄를 회기하고 당신압해서 목숨을 쓰는 것이니 여보수일씨 괴왕에 지
 내인 일은 흘너 나려 가는 물에 띄여 버리시고 그만 용서하여 주시구료응 수일씨
 지금 감아니 생각하면 그썩에 생각지 못하고 지각업시 할일이 엿지 뉘웃쳐지고
 원통흔지 나는 무엇이이라고 말씀할 수가 업습니다 그썩에 당신이 눈물을 흘니
 시면서 하시든 말씀도 입디치지 여져 버리지 아니 할겟소 이후에는 날이 갈수록
 생각날일이 잇슬터이니 오늘 저녁일을 여져 버리지 말나고 하시든 말씀이 지금

도 귀안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그척는 여호의혼신이 씨엿든지 엿지하여서 그척말씀을 못알아 들었든지 어리석은 제몸만 척망할슈밧게 업지만은 죽드리도 다시 회복할지 못할일을 내가 웨하엿든지! 여보수일씨! 당신의 별역을 내가 입었습니다. 나는 살아서섯슬 쌍이업도록 당신에게 잘못한별역을 마쳤습니다. 그러니 인제는 그만 용서히주시요. 네 수일씨! 그리고 인제는 이와긋치별역을 당하여서 이모양이 되얏스니 지금다시 죄우를 생각흔들 소용업는일이 오살아잇슬슈록 고성만될터이오. 내고성만될뿐이니서 이세상이 여러가지로 섭々한일은 만이잇자만은 나는호로뵈비죽어서 이런근심저런고성을 다이져 바리고 전성에서 정결하게지내든 몸이 다서되어서 이다음제상에 터어나셔는 무삼고성을겨든지. 당신과 혼가지로 내외가되어서 내가숨에 가득히 들어잇는 말씀도 할것이오. 이제상에서 다가지못할알도 마음되다하하여서 당신마음도 깃잡게하여드리고 내마음도 질거워서 혼제상을 저미잇게지내 보고심소이다. 여보수일씨. 요다음 다시 터어나는 세상에서는 결단코 내가 이제상에서 갖치 자각업시 안니할터이니. 당신도 아모조록잇지말고 계시오. 진정말씀이니. 잇자 말으시오. 죽을씨에 림하여하는말은 스름마다 착하다하오니. 나는이후제에서 나 다시죄웁기를 축원하고 죽습니다. 그러니 제발 용서하여주시오. 쉼니는

목소리로 순애는 잔실히 말을맛치고 한손으로다시 칼자로를 잡으며 방바닥에 엎드리진다. 「이게웬일이야!」 하며 수일은 비로소 놀나운 마음에 외마디소리 갖치 질너더라. 「아…… 수일씨!」 하며 슬피바라보는 순애의얼굴은 피눈뵈며 「여보순애! 이게무슨지각업는일이요!」 하며 목에뺏치여잇는 칼을싸히려함에 혼마음을독하게먹은 너즈의힘은 조로를잡은것이 철척갓하여 움작이지안이하도. 「이것을노아. 이손을놓치못할레야. 엿지하여서 이칼잡은 손을놓치못하느냐. 말이야!」 「아이고 수일씨……」 「응웨그라!」 「아이고 나는 조흔마음으로 갑니다. 다시 유언할 말씀도업소. 인제는 나를 용서하섯구료!」 「글세. 이손을 노아요.」 「이손은 펄슈가업소. 인제는 니가 눈을감고 죽겿습니다. 여……: 여보 수일씨! 점점정신이 업셔져가니. 어셔어셔 니귀에 말소리가 들닐동안에 용서하여준다.는 말씀하마디면……:」 철々 흘너느리는 피는자라를 적시느니. 점점살아져가는목숨은 순애의얼굴을 가리여온다. 수일은 그경상을 츄아 보지못하여 어지러운마음으로 순애의몸을흔들며 「여보순애! 정신을 차리여!」 「으……: 응……:」 「수일은 혼연눈물이 소스스오며 목소리가 쉼니여느온다. 「아! 순애! 용서하여주리다. 밧셔. 니가용……: 용서하……: 엿서. 응. 순애……:」

「아이고 조... 조화라 여보 슈일씨」어... :순애... :... 「흐마더부르고 슈일은 다시 가슴이 막히여 말을일우지못하느니 슈일의 무릅을버히고 슈일에게 안기여잇는 순애의얼굴에는 다시 두줄눈물이 흐르며 감겨가는눈을 간신히 실낱갓치뜨고 수일의얼굴을 바라보며 「그러면 슈일씨 나는 인제 흐숨에 죽어 바리게소 수일씨 부디 안영이...」 흐뵈는기며 드시 칼자로를 꺾어잡고 목을여여너이려하는것을 슈일은 그손을 썩 붓들며 「글세 이손을 노와요 었더든지 손을떠여」 「아니 그되로 감안이 두셔요」 「글세 이리저 말아요」 웨이리하시요 여셔죽어야지요」 간신히 칼자로 잡은손을 풀어놓코 셋천칼을썩여노으리 순애는 홀연 몸을벌떡뒤엎치여 일어난 문박그로 엽드려지며 달아난드 「여보 순애 어디를 가오」 하며 붓들며하는손은 임의밋지못할지라 슈일은 급히 일어나 좃차가려흐즈음에 급히 떠여놓는 발길이 최만경의 죽어넘어진 신체에걸니여 흐간동안이나 멀니 너머지느니 문지방에 허리를 걸치여 압품을 익이지못하면셔 다시 소리를 높히하야 「여보 순애 잠잔만 기다리오 너가 할말이잇스니 거괴셔기다리오 여보게 흘멈 그순애씨 가지못하게 붓들게」 아모리 소리를 높히하야 부르지지나 순애는 도라오지안이하고 로파도 되답이업다 수일은 아픈곳을 두손으로 부비면서 간신히 몸을일어 문을나서 스면을바

라보니 순애의 모양은 보이지도안이하고 다만 발조초마다 줄々이흘니고잔 피흔적만 마당으로부터 되문을쫓쳐 나난지라 슈일은 반셔보다 묵어운 다리를 신을고 되문을 나서보니 순애는 멀니가지못하고 압헤가는모양이 보인다 푸른눈눈에 ^눈라게떠셔잇는 월석은 먼산봉오리에 구름갓치 피어올르는 안기서지 몽롱히 보이느니 수일은 순애의가난곳만 향하야 다름질한다 「여보 순애 가지말고 거괴셔 기다리오」 부르는소리는 산에올니여 다시 수일의귀에들날 썩이오 교교호월하에 다시되답하는스름의 소리는업다 수일은 이를 악물고 순애의 뒤를뜨라 좃차간다 눈압헤 보이는 순애의 거름을 삼시잔이면 좃차가잡으리라 하엿더니 수일은 점점 숨이치고 다리가헛노이며 멧간동안압헤 보이건만 잡기는 어렵다 수일은 전신에 평성기운을다하야 전도하야가며 다름질한다 순애는 거의잡힐듯하야 수일의손에 바름에 놀니는 치마저락이 붓들니리 치마는 스스로 푸러지고 몸은 다시다라난다 순애는 다시 언덕을넘어가며 풀속으로 주저안더니 흐뵈어리 선혈을 토하고 솔나무사이로 불어오는 말근바름에 다시정신을 차리여 순애는 언덕아리 버들나무사이로 들어가논디 그아리에는 일만물결의 김풍물이 흥흥하야 스름의목숨을 기다리고잇스니 순애는 이곳에서 몸을 더지려함어러라 수일은 두손으로 풀썩리를 더

위잡고 언덕우으로 올라오며 즈로 순애를 부른다 그러나 순애는 뒤답이업고 푸른버드나무스이로 향였도록 보이는 얼골을 나타내이며 좃츠오는수일을 나타보고있더니 수일을향하여 용서하여달라는 모양갓치 두손을 [◎]흔씩합하여 들고 무수사리향며 다시 나무그늘로 몸이 숨겨진다 순애는 언덕에 무성흔이 슬에 저진풀을 발로 디디며 위력히 물가에 몸을 일어서서 [◎]우아리를 내려다 본다. 양상이 흐르는 여울물소리듣어 오려하는 스름으로향야금 손질하여 붙으는갓갓다 흘러나려오는 물결은 바회에 다닥쳐 다시 흐르다가 문의을지여 고리갓치 멧박회를들다가 흘러나려가는것도 이자리가 스름이들어올씩라고 가라쳐주는갓갓치 생각되는데 슬적을 씻치고 지니여가는 바름은점々 더향여온다 슈일은 수풀스이로 간신이 보이는길을 따라 나무뿌리를 더위잡고 언덕우서지다스라 아리를 내려다보니 천만길이나 남은 언덕아리에는 물이 가득이 흘러내려가는데 순애는 그물을 향하여 언덕아리로 살달듯나려간다. 그 죽음을 구하고즈향는 마음외에 다른생각이업는 수일은 그모양을보고 정산이 아득하여지며 발길을 멈출스이도업시 다만 흥발작육이라도 [◎]뒤지스안이크즈 좃츠 내려가며 「순애!」 하며 부르는 소래갓치며 순애의 몸은 말서 바름지 [◎]더여간후에 연과갓치살아지고 보이지안이한다. 수일은 하날과 싸울붙으지

々며 물물을 헤아리지안이하고 이수풀밧과 저나무스이를 츄즈보니 죠곰도형적이 보이지안고 멀리구비쳐 흘러내려가는 물스결에싸이여 잠겼다떠스다향며 내려가는 물결이 후서스름의 몸이안인가향며 슈일은황망히 나무가지를벗들고 언덕길에 몸을벗치고 바회를돌아 구령을넘으며 천신만고하여 발이싸지고 몸이잡기것만은 몸의위리음은 도라보지안이하고 갓가히일으러보니 슬푸도다 록음은 근심을 먹음고 물스결소리는 체음향는데 여울스이에 언쳐여잇는것은 순애의신례로다. 슈일은 홀연 되성통곡향며 순애의 신례를벗들고업드러진다 슬푸도다 순애여! 순애가 성전에 그스름을위향여 얼마콤 애정을 두엇던고 이제는 수일의일천줄기로 흘러내리는 눈물이 다만 무심히 길게 잠들어잇는 순애의얼골을 적시이건만은 순애의령혼은 이를아지못하는도다. 수일은 슬픈마음을 억제치못하여 「어! 순애 여보 순애 그여히 죽었구료 즈살할것도 불상헌데 이게 또무슨가업스일이요. 칼로는목을 찌르고 다시물에서 지빠지니 엇지향여 이도록 참혹흔일을 향였단말이오 아! 불상향여라 이렷케 아조결심을향였소 여보 순애 그티가 즈살하고도 몸을 물에 더지니흔번죽음이 오히려부족향야서 두번식이나 목숨을 씌는단말이오 아! 그생각을향너서 진정을상향여 못견디겟구료. 그티가 아모말을향드리도 그티에게 더흔너

한은 결단코 너지 안이 하리라고 믿제를 하였소 아모리 믿제는 하였지만은 이와
 와긋치 무츨흔 죽음을 너눈으로 보고나니 미옵던 마음도 업서지고 닳되던 생각
 도 살아젼소 여보순애 인제는 용서하였소 내가 진심으로 용서하였소. 그디
 가 전과를 회기하고 이모양까지 하는것을 보니 너가 도로혀 붓그럽소 여
 보순애 너가 정말 면목이 업소 이도록 마음을 결단 혼졸을 아지못하고 그디를
 죽인것이 너가 잘못한일이요 여보순애 이렇게 죽도록 혼졸을 아지못하고 그디를
 용서하여 주오 알아 들었소 응 순애 아! 그만 죽엇단말이요! 수일은 순애의
 죽음이 극히 촘혹하며 또는 결백한야 전일에 부정하던 피는모다 훗터져 더
 립헌몸을 결백하게 써서 버렸고 다만 남아있는것은 회기하는 뜻으로 또는 정
 성으로 너몸을 위하야 목숨을 바린 사체를 봄애 불상하고 공척하야 어나곳에
 비유할수 업시 간절히 슬허한다. 수일은 구곡간장이 씌어 지는듯시 슬픈마음
 으로 눈물을 썩리며 「여보순애 그디가 이렇게 죽엇건만은 향설할개도 피여
 못하나 그디신애 너가 숨속을 그향설로 알아 주오 이제상은 인제마지막이니
 아모조록 죠흔데로 연화되를 초조가오. 후세에는 그디가 말하든바와긋치 우
 리두스름이 다시 한번 부부가 되여서 백제를 누리여보소이다. 순애:.....아모
 조류 이저바리지마오 나도 잊지안이 할터이니!」 어름긋치 석은 순애의 손을 두

손으로 세여 잡고 얼굴을 드러다 보려흔즉 눈물이 가리여 형체를 분간키 어려운
 디 수일은 신체를 붓들고 다시 호읍한다 「그러나 순애 그디는 비록 혼변죄를
 지엿다 하드리도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자살까지 하였스니 그마음은 디단이 가상
 하오 그리야 가위스름이지. 그러나 이 리수일이논 엇더하오 명석이 스나희
 지식으로 생겨나서 일기아녀 저에게 박타를 받았다고 혼평성을 그릇하여 도쳐
 못흔마음으로 염치도 모르고 도리도 생각지안코 다만 리육을 탐하는니 박타는
 아지못하니 그돈은두어 무엇에 쓰며 무슨사름으로 그런일을 하오. 스름이라하
 는것은 스름의 반다시 형홀도리가잇고 너몸외에 또 사름의일이잇거늘 나는그
 보리를 다하지 못할뿐안이라 형홀마음도 먹고 잊지안이 하고 일기녀저로 인연
 하여서 락망을 하얏고 락망한것으로 인연하여서 남조의 일성을 그릇하니 사름
 으로 생겨난번의가 어디잇스며 사름의 도리가 어디잇소 아! 잘못하였소 너가
 잘못이야. 순애 그디는네게 디하여서 회기하였스니 나는사름된 도리에디하
 야서 회기를 하야 할것이오 그디가 이렇게 회기하든 모양을 보니 나는실로 붓그
 럽기도하고 불엽기도하오 당초에 그디가 나를바림으로 인연하여서 이렇듯타
 락하리수일이면 그디가 누웃치는 동시에나도 속히 마음을 꺾쳐서 스름된길
 에 어그러진 이죄를 속(贖)하야 할것이오. 아! 그러나 생각할슈록 이제상은

괴로운 일뿐이로구나 사람의 도리는 도리요 의무는 의무요 락은 락으로 그
 것도 업스면 못쓰는 것이지 나도 심탁씨의 집에서 순애호스름만 바리고 공부를
 열심으로 하고 잇슬 때는 이인세(人世)라 하는 것은 다만 지미스러운 꿈으로만
 생각하였구요. 그것이 꿈결같은 이 세상이런지 이것이 꿈결같은 이 세상이런지
 그후로 오날날서지 여섯히 동안에 나는 스름스려운 마음들 가져 본날이호로도
 업섯소 그러하거늘 무엇을 희망하고 내가 살아잇겟소 죽기를 결단할 용량이 업
 서서 그러하거늘 김정연은 타서 죽고 순애는 지살하였스니 나는엇지하면 좃탄
 말이요 너가 문일살아잇스면 평성을 두고서 그대의 죽은 얼굴이 눈에 밟피여
 서 눈물노 세상을 보니야 흘러이니 그모양으로 구차히 살아잇스면 무엇에유
 의하겠소 세상에티하여서도 조공도 유익이 업슬 것이요 제물에티하여서도 고
 성문점々 더 흘러이니 차라리 죽어 이몸은아 쥬체하는 것이 제물에도 편안하
 고 더욱이 너가 죽으면 이 세상에 여러 스름들이 살게 되고 또는 깃거워홀는지
 아지 못할 일이지. 나도 세상에스나 회지식으로 생각나다가 아녀자로하여서 몸
 을 그릇치고 나종에하는 일은 강도에서 다름업는 고리티금을하여 스름의 눈총
 과 욕설을 받드가 무성무취하게 죽어바리기도 원통하지 않은 처음부터 이길로
 나스기가 불찰이지이러듯운수가 비석하티 수일의 몸이 후세에나 다시 조흔

스름으로 하여서 이 세상에서 원통하던 일을 모도 풀어보지. 여보순애 이자
 리에서 노도 죽소 그대의 목숨은 나에게 밟치였스니 너목숨은 그대를 쥬오리
 드 후세에서 다시 부부가되는 이것이 폐벽이요 잘바다주오 응순애! 그대도
 아마 조와 흘러이지 노도 실여하지안소 노와 혼가지로 잠급시다. 하여 순애의
 신체를 일으켜 등에 업으려하죽 가범기가 혼조각조희와 다름업다 고히녀이
 여 뒤으로도라보니 향기로운니음취가 코에 음습하며 혼송이 박합뜻이 스름의
 얼굴꽃치 가득이 피여 억키넘어로드리웠다. 앓작놀니여 눈을 뜨고 세다라보니
 아츰날에 춘몽이 깃혔는디 창밧개는 참서소래문 째々々

데스장 淸涼菴(淸涼庵)

홍몽을 세이고난후로부터는 리수일의 가슴은 더욱々々 산란하며 이리 생각하
 고 저리 궁리하니 세상에 살아잇슬 마음은 호말문치도 잇지안이하고 차라리
 그석에 썩던 꿈과 갖치 되기를 원한다. 수일은 그후로 문스를 져쳐듯코 번민(煩
 悶)하여 호을노지니기를 삼스일 동안이나하였더라. 이와같은 스정을 말하자
 할나 스름이 업스며 의론하자할나 벗이 업고 다만 스스로 가슴만 티우고 잇슬뿐
 이로다. 이렇듯 어지러운 근심을 두손으로 썩여다가 밍널히 일어나는 화중
 에 슬으고즈구나 그근심을 슬어지게하는 날은 리슈일의 몸도 이세상을 썩나는

날이라 술아잇슴이 올흔는지 죽는일이 가흔는지 리슈일의 흥중은 점사 어지
 럽고 드디여 이문대를 서단하기에 항상눈을감고 심량홀씨가 만이있다。 수일
 은 날로 왜락호정신은 업서지고 암혹현디에서 비화하는것又하야 점사신데
 의건강을 히롭게하는고로 잠시간 인연(人烟)이 복잡할곳을 피하여 청량호산
 중에서 식션호공이나 마시고 현세의 괴로운일을 이즐가하여 향로는 아찰붓
 더일즉이 경청하게 흥장을차리며가지고 멧칠이고 멧달이고 실인민음이 성기
 지안이호동안은 두류홀예정으로 동덕문밖 청량암(淸涼菴)이라하는 조고묘호
 암자의 처일부터 천절히 아는승에게로 차자나아갓더라。 수일은 인력거를모
 르 동문밖으로 향할셔도 가슴에는 전일의꿈이 연면하야 졸연히 썩는지안이
 향고 인력거우에서 담요와 가방을 무릅우에 올녀놓고 홍릉(洪陵)어구에 다
 사를써싸지도 고기를드리우고 좌우를도라보지 안이호더니 홀연올사창사호
 송림이 길좌우에 라렬하엿고 코에맛초이는 초화의향기에 비로소 눈을들어서
 면을 도라보니 심수호경치와 청량한공기와 잔잔히야와 웃득흔바회와 심지
 어하늘에 썩서잇는 구름싸지라도 별건곤에 들어온것又하야 천만가지의 우수
 스러가 일시에 술아질듯홀디 다만싸사로 놀는운것은 산이던지 물이던지 바
 회던지 슈물이던지 나무던지 모도 몽중에 보던곳과 흡사하다 슈일은 그암자

에 들어가 헝리를 내려놓고 다시 뒤문을나서 산우로가려홀즈음에 엿더호남
 조호스름이 슈일을보고 홀연얼골을 도로켜외면하고 그뒤문으로 조차드러간
 다 그남자의 연과는 이십칠팔세되여 보이고 신장은 조고마홀디 차로전후를
 도라보며 은근히스름의 눈을 피하려함으로 슈일은 엿더호스름이 무슴
 연고로 그릇듯슈상히 향는고하야 유의하야보기를 마지아니한다。 그러나
 그남자난 모양과의복과 동작이 절전에 잇는 스름도아니요 시골스름도은
 이요 분명호 디도회에서 성장호스름이라 그남자의모단 심상치아니호동작
 으로 밀우어보면 혹시 정신병(精神病)이 잇는스름으로 한양홀곳을 초저서이
 절간을 초저음인가 호을로 결정하고 다시는 의심치도아니호엿더라。 슈일은
 산우로 산아리로 한박회를 도라다나다가 저물기에 이르러서 암자로셔서히
 도라오니 처음에 뒤문에서 맛나보던남자는 그절아리사방 조그의쳐소로 정호
 건넌방에 안자셔쓸아리를 내려다보더니 수일과 얼굴이 마조침에 호호얼골
 을움치고 몸을피한다。 수일은 그남자의형석을 다시 수상히 생각지도 아니호
 고 조그의방안으로 들어가 두루막이와 죽기를버셔걸고 다리돌떨치고 누엇스
 니 고요호산중에 썩셔로 들니는것은 바람소리라 조곰잇더니 마당으로쫓쳐
 전발호는소리들니며 늑은승은 등잔을들고옵서 들어오고 젊은승은 저역상

을 또다 못는다. 수일은 누엇던 몸을 벌떡이러나며 「아 불셔 저녁이 되었나」
 젊은승은 밧그로 나아가고 로승은 저녁상을 다시 수일을호로 못가히 다가는
 으며 「으니참 나리... 불셔 얼마만에 인제야 뵈옵소 악가는 엇지 밧밧던지 이
 약이도 홀마디 못호고... 그동안은 그러케 흥번도 드러다보지은이 홀단말습이
 오 그러는 그간에 어디가 편치 못호섯소 신석이 되단이 못호섯구료」 「삼익륙
 십일일을 두고 일상 병치레만호는 스름이 열골인들 엇지 폐여 불수가 있소 그리
 서 이번에는 한가호절잔에서 약이느 좀먹고 편은히 몸조례는 호여 불가호고
 느온길리오」 「아이고 그러치요 이것저것히도 뇌일신이 제일이지요 어셔어셔
 약을 잡수시고 병환을 곳치셔야 지오 그러는 찬이 아모것도 업셔서 무엇을 잡
 수시느 오늘날은 두부전골도 못호고... 모도 널니 용셔호여 주시요 요사이느
 공일에난 손님이 별노들 느오시지은이 호시니서 맛츄 예비호엿든 물건이 업셔
 셔그렸습니다 뇌일썸이나 문은장에 스름을보니셔 흥정을 좀 호오겟습니다
 뇌일은 잘찰려셔 들일터이니 오늘날은 비를 잔득 추겨 두시요 하하하 튀각더
 가저오릿가」 「안이그만두오 그만호면 비가 불너 못먹지 열그릇시라도 먹겟소
 그런데 요사이느 손님이 그러케 엽단말이요 건넌방에도 손이와셔 엽단모양
 인데 그리」 「그양반 호분뿐이야요」 「단지호즈 엽단말이요 그런데 약가 잠잔

그스름의모양을 보니서 무슨병잇는 스름갓습되다」 「안이요 병외호지는 안니
 호든길이요」 슈일은 입에 무릿든 물을 다삼키고 「그러데 되스도 그스름호고
 더러이약이도 호여보았소」 「네 이삼일제 목은냥반이니서 짐안석구호치 모도
 천호지요」 「그스름도 나호흔 축인게로구면 혼즈무슨맛으로 와서 멧칠식목이
 나느 병이나잇스니서 그러치만은」 「안이 그런것이안이라요 초즈을스름이잇
 는티 업티지 오지안는다고 어제부러는 호로 멧번식 면차덩거장으로 가서 기
 다러보기도호고 편지도 못치는티 목이라셔 나을스름을 기다리는 모양업되다
 을스름기다리노라고 조셔도 안이먹고 이를써요」 「허허 그것참 되단이 격정
 될일인디 기다리는스름이 안니오는것가치 화나고 갑갑호것은엽것다 그러치
 만 조셔를 먹지안코 이쓸것이야 무엇인가 엽더호스름인고 사나힌가 녀편네
 인가」 「글세요 소승인들 알수잇습닛가」 나느 그런말을 들으면 남의일이라
 도궁금히셔 못견디겟셔 조셔히 알고나야지」 로승은 부처를들고 상에파리를
 날니며 「나리도 되단이 다심호양반이구료」 「우리는 그런말을 들으면 알고십
 어셔 못견디는 성품이야」 「그러케 기다리시다가 늙은이가오든지 당신아시는
 친구가오면 조치만은 만일호호호 아가씨가 왔다가는 큰일나겟소그려」 「웨우
 슨 큰일이난다호는말이요」 「만일어엽분씩시가 저손님방에 와서잇스면 나리

가 오죽욕심이 나시겠소 침을 흘니실터이지」 「남의물건을 침을 흘니면 소용
 이 있나」 수일은 저녁밥을 맞치지 안이하야 건넌방에 안자있던 손은 옷술입고
 문밖으로 나아간다 로승은 수일을보고 입을빙긋하며 눈짓을하고 나작이 말
 한다 「저손님이 또 정거장으로 기다리던 스름을 마중나가나보오」 「정말 티단
 이 기다리는모양이로구면 혼저이런곳에 와서잇기는 실상말이지 죠곰 심々할
 데야 나부터 그러하니사」 하며 혼저말과맞치한다 「그렷코말고요 이렷게적
 썩호산중에 도티쳐 혼저만 오시기가 당신의 잘못이지요 남과맞치 좀 정신
 을치리시요」 하며 로승은 입을가리우고 웃는다 「인제야 티스에게 비왔스니
 사 요다음부터는 정신을차려서 이저바리지말고 혼스름다리고나오지」 「요다
 음에 흘것업시 너일아침에라도 문안과별하셔사 불너내오시구료」 「문안과
 별하셔서…… 그러면 우리집에잇는 밥지여주는 할미장이나 불너올가」 「공
 연히 나으리도 그리지말고…… 할멈은 불너다 무엇에 쓴단말이오 습스십년후
 에 할멈될스름을 불으시라는 말씀이지」 「남부터러운 일이지만은 우리집에는
 단지 할멈할아bate는 다시업스니사」 「웨딕에잇는스름만 말씀하오 다른데
 싹갖흔 아가씨가 만이잇지요 그중에서 혼스름을 부르시구료」 「다른데야 드
 러해엿지 그렷지만 그것은 모다 남의소유물이라든데」 「앗다 티체 나으리도

거짓말습은 펴도하오 스름이 입은 빗두러도 주라는바로불나고 참말을하야지
 요」 「참말이고 거짓말이고 나긋혼스름은 그런 조흔사름들은 혼아도 아는것
 이업서요 그런조흔데가 잇스면 무슨저미라 이런절간에 혼저나와잇겟소」 「아
 무럼그렷치요 산속에 잇는 중이라고 아모것도 모르는줄알고 그리하오」 「안
 이 진정말이지 공연이 산속에 혼저와서 산과 덜노 도라다니는것은 나긋치
 밋천스름이네 그렷치」 「그러면 소승은 밤낮으로 평성 산속에만 잇스니사 별
 서 밋천지가 오리되엿게요 하々々」 슈일은 밥상을물니고 다시 티문을느셔
 잠간동안 비회하다가 방으로 들어와보니 시계는 맛춤 아홉시가 되엿는티건
 년방에잇던손은 덩거장에나가 아죽도 도라오지 안이하엿더라 슈일은 권
 연흔기를 피여물고 등잔불을 향하여 한층동안 이는 안잤다가 길게 한숨짓고
 권연싹흔 골논사름긋치 마당으로 넘어더지며 일어나 자리를 폐고요히 누
 었스니 집을 여위싸서 불어오는바름소리는 썩々로 버키머리에 썩러질뿐이라
 그러는 조용히 혼저누어잇는 슈일의가슴에는 처음부터 의심스러이보앗던 그
 손의형석을 의심아니치못한다 수일은 의심을할사록 점々 의심은 더하여진
 다 그스름은 무슨연고로 몸도 수척하얏고 무슨일로 사름을 쓰리여피하는고
 가히 의식스러운일이오 연구할사건이라 이러듯의심하다가 수일은 남의스실

을알고저하야 공연히 심신을 수구로이함을 도로혀 시시로척망하고 스스로 금지한다. 그러나 스름이라 하는것은 왕々히 저의게 달난마음을 능히 스스로 억제치못하며 능히 스스로 하지못하는것이라. 수일은 의심하는마음을 의가슴에서 전면(纏綿)하야 떠나지아니하느니라. 웃간에 걸니여잇는 패종은 늦게들엇던잠이비로소 서여 기지키려듯시 쉼々々치는 종소리가 세여본즉 열한시가되엿더라. 그러나 밤그로나아엿던손은 지금것 도라오지 아니한다. 그손은 도라오지아니하닌가 또는 도라오지못 함인가하며 또한의심을 마지안이하며 버기를이리들고 저리들나 전전하다가 열두점이되도록 그손의도라오는모양은 보지못하고 드디여 잠이들엇더라. 이른날 아침에 일즉이 일어나미쥬인으로승은 마로에와서 걸내질을 하고있다가 방문을열고 내여다보는 수일을 보고 손을멈추며 「안령이 쥬무섯슴닛가」 「네나는 잘자쇼만은 되스는 지금도 눈에 조름이 가득하구료」 「졸니고 말고요 어제밤에 저방손님이 오실줄알고 서로두점이나 되도록 문을 걸지아니하고 기다리다가 인이잠이 덧들녀서 못잠셔요」 「아 그러면 그손님은 인이 어제밤에 와셔 자지아니하엿소……」 「네안나오섯셔요」 수일은 건넌방에 문을열어노앗슴을보고 마로로 나와서

지니여가는데하고 방안을드려다보니 아리사목 머리맞호로는 검은가방흔키와 누른담요흔아가 노여잇고 그엽호로는 쥬쥬보즈에 옷갓흔물건을 싸셔 노아잇다. 수일은 그가방의모양을 살펴보아도 별노히 의심스려운형적은 보이지안이름으로 다만다리고오는스름이 엿더흔스름인지 그를보아서 가슴에 의심을 풀니라하고 그손보다도 수일의기다리는 마음이 한시가밖부게 기다리고있다 이날도 임의저물어 황혼이되고 방안에 불빛이 조요한뒤 수일은 저녁을물니고 목침을 놓히하고 한가히누엇더니 홀연 급히 사름의신발소리들니며 쥬인로승은 문지방넘어로 방안을 드려다보며 「여보 나우리……인제왔소 저기문간에 들어오니 좀녀다 보셔요」 「무엇이 왓단말이요」 「글세 얼는일어나서 좀녀다보셔구료 싹싹흔 식시를 한아다리고왔스니」 「을치 그러면 저방손님이 기다리든 스름이온게로구면」 「로승은 다시 뒤답도안이하고급히 부엌으로 들어가셔 기동을잡고 녀다본다 수일은 목침을 밀치고 벌떡일어나 마당을 향하고 녀다보니 발셔 남녀두스름의 그림자가 마당으로 좃츄들어오며 건넌방되스마로에 신을벗고 들어간다 희석중절모를 눈썹까지 숙이여쓰고얼골을 스름보이지안이 하는곳으로 도리케고 압셔 지니여가느스는희는 분명히 건넌방에 와셔 잇던손이요 다리고오느느는 이십이삼제는 되어보이느니라

게 빛기여 쪽진머리는 검々흐마당을 빗초이는 등잔불빛에 거울々치 광채가
 며 저서히 보이지는 안이호는 룬이흐르논 비단저고리 비단치마는 서슬이 푸
 르도록 식감으로 하여 입고 손에는녀조의 가발을들고 호손으로는 수건을들어
 입을 가리우며 스름의눈에 띄이논것을붓그러이 녀이논지 거름을급히하여 남
 자보다 압혀서々 방안으로 드러가려한다。 급々히 지녀여가는 모양에 자서히
 는 보이지안니호였스는 의복과티도는 잠잔보던티 여염가의 녀자는안니호화
 류계에서 출입호는 계집스름이 안인가하고 수일은 호을노 짐작호였더라。 그
 남녀두사람은 깃거위호기를 마지안이호는모양으로 서로 무릅을 연호고 손을
 서로잡고 안자서 무엇이라 감은〱 두런거린다。 「그렇치요 그러호기에
 는 엇더케 심녀를호였는지 모로지요 당신이 여괴은자서 혼조성각호시는것々
 처 쉽게 일이되여야호지요 그야 당신의걱정되시는마음도 그러호시겟지요만
 은 너근심은 엇더호였는지아시요 내마음을좀 생각하여 달호시지요만은 그
 는 피초에 맛찬가지가 은이요 아이고 는논지금々자 가슴이두근〱히서 뒤
 에서 잡으러 좃차오는것々치 마음이 노이지은이히서 못견디겟소」엇더튼지우
 리가 약속호되기로 이렷케 맛났스니 제일이지」「참말 그리요 그적게밤々히서
 는 엇더케 녀녀가되고 걱정이 되는지 엇더하면 조호를가호고 밤시도록 궁니만

호다가오날이러케 몸을싸져는와서 성각을호니씩 뇌가성각을호여도 용호게는
 철망을버셔 는와셔요 비것도 우리의 인연이 다 진호지은니호는 넋인게지요」
 호며 잠간 남조의얼골을 흘근 처여다보고 슈건으로 눈물을 씻는다 「그인연
 이 다 진호지안이 호였다는것은 우리의몸이 마지막으로 업서질중조지 나는
 이러케 될줄은 몰나셔 악호인연이라 호는것은 호슈가업는것이야」녀조는 오
 히려 눈물을 흘니며 슈건으로 얼골을 가리우고 「당신은 말뜻마다 악호인연
 이니 무엇이니호시니 악호인연이면 엇더호실터이오」 「악호인연이니씩 우리
 가 이모양이 되었지」「이모양이 되었스니 엇더호겟다는 말씀이요」 「자금와셔
 야 엇지호슈가있나 혈일업지」 「그런말씀이야 호나 마는호말씀이지요 티레
 당신은 말씀호시는것이 션々합디다」 「여보게 뉘말이 션々호단말인가」 호는
 남조의눈에도 눈물이 가득히 고여있다 「당신말씀이지요」호며 그녀조의눈에
 서는 방울〱 썩러지는것은 눈물이라 「나다려 션々호게호다는 말이야...」
 그런말호지말게 그런말을 들으면 내마음은 좃겟나」 「좃튼지 언잔튼지간에
 티체가 당신말씀은 션々히요」 「또 그런소리를 호네그러 내가 무엇을 션々
 호게호든가 그말을 좃호게」 「네내말씀호오리다 당신은 말뜻마다 악호인연
 이라고 말삼호시는것이 아조버릇이 되었습디다 우리두스름의 스이가 본디

조을인연이면 이모양이 되얏겠소 물론 인연이 좃치못한것으로 이런근심을
 하고 도라다니지요 그런것을 당신은 말씀뜻마다 인연이 조흔니 언차느니하
 지니 뜻은나는 좃탄말씀이요 박고아서 생각을하여 보시구료 날로하여서 조흔
 인연이 좃치아니하게 되얏단말이요 우리가 이모양이 되여가지고셔도 그런서
 허할말씀을 일상하시니 내마음은 조할듯한단말씀이요 그런말씀도 다른서
 흐면 모로겠소만은 오날서 이모양이 되여가지고도 그러케말씀을 하신단말이
 요 감아니 당신도 생각을하여 보시구료 내마음에야 속하겠나 아니하겠나 「글
 세 우리의인연이 악하니까 악하다말이지 내가 마음에 부족할일이잇서까 그
 리는말인가」 「글세 인연이 악하면 엇더하고 조흐면 엇더한단말이요」 두스름
 은 이윽도록 말이업는디 녀는 은근히 입을 그리우고 울음에 느끼고있다
 「웨 이러케 울고잇서 남의마음 상히주지말게」 「아모리생각하야도 당신은 녀
 마음을 모로시는것이 원통합디다 당신이 그리하시면 나는……츄……느는 엇
 더라고 말할슈가업쇼 단지흔스름으로 밋고잇는 당신이……그리시니……」 그
 녀는 더욱 느끼어올며 말을 일우지못한다 「여보게 글세 즈네도 생각을좀
 하여보게 우리가 이모양된일을 조곰이라도 마음에엇지 알것갓흐면 본리부터
 즈네하고 이런스이되엿슬니도 만무하고흐마음을먹고 여괴서지흐써나와서

이모양을하려고 하였슬리는잇는 우슴의말이라도 니귀에 그런말은 들녀쥬
 지말게 그런말을 들으면 녀역시 마음에 좃치안코 야속만하이 너모야속하야
 셔 나도 눈물이나네 니조곰이라도 즈네를 범연히 알아셔그리는것이 아니
 요 즈네를 서허하게 되접는것이 은이니 그런말은 조곰도 니지말게」 「그러
 치만은 하필이러흐써를 당히셔 그런섭々호 말씀을하시니셔 나도 잠간야속호
 밋음에 흐말씀이지요 그러면 니잘못하였스니 용서하시요」 하며 그녀는
 고기를 드리우고 남는 목々히은자이다 「여보 무슨생각을 그러케정신업서
 하고잇쇼」 「다른생각이야 할것이잇나 우리두사람의 신세를 감안이 생각하니
 셔 괴가막히여 그리하네」 「무엇허러 그런생각을 하고게서단말씀이요」 「……
 ……」 「지금와셔 그런생각을하면 무엇을하고」 남는 눈을 돌녀
 던정을향하고 길게하숨짓는다 「글세 그러케 하숨쉬고 슬허하시지마오 웨 그
 리하오」 남는 디답이업고 다만 한층등안은 목々히 안즈잇더니 다시 그녀
 주의얼굴을 드러다보며 「여보게 옥향이…… 즈네가 지금 나히 스물두살이안
 인가」 「별안간에 나히는 웨 못쇼 당신은 지금 스물일곱이시지요」 「그러면
 즈네가 열아홉살이든가」 「그러치요 그셔도 아마 요스이쯤되엿는것이야요 달
 은발고할때에 춤도덥도아니흐디 당신하고 티동강으로가셔 비라고 놀든생각

이 지금도 엇그제갓흔데오 그날이 우리가 처음 맛나는새지요 너는 혼 열아홉
 솔씨구료」 「엇그제갓더니 밭서 삼년이 되엿네그려 세월이야 쉽기도올다」
 아모리성각을향여도 모다 씩결갓소구려」 「참그런치 씩이야」 「두스름은 셔로
 손을잡고 무엇을련향여 말을일오지못하고 눈물만 흘니다가 아」 참 씩결이
 지살아잇던제상이라고 흘수가업셔」 「씀이고말고요 우리가 몽중에서 멧히를
 보니고잇섯지요」 입박그로 나오려흔는 우름소리를여지로 감추고즈글야 두손
 으로 얼골을 가리우고 남즈의 무름우에 업드러진다」 「우리가 이모양이된것도
 모다 팔즈이지요만은 그 못된놈만 업섯드면 우리가 이런고성은 아니홀러이오
 나는 너더로 이리저리 생각할일이 잇스니 셔 얼마동안만 기다려서 시절이 오
 기를 기다리고잇스면 하나님이 도아주시드리도 우리에게 조흔일이 여의하게
 될일이눈에 확연히 보이는것을 그 못된 망흔놈이 훼방을 노아서 억지의짓을
 혼서득으로 평성을바라고잇는 당신의몸에 루명서지 씨우게할일을 생각할면
 당신에게 다시무엇이라고 말할수업소」 「그게 무슨말인가 그것이야 우리
 가 다 맛찬가지로 당흔일인더」 「아니요 그러치아니히요 너가조곰만 결단성
 이 잇섯드면 이모양은 우리가되지아니 할앗슬것을 마음속으로는 여러가지로
 생각은 만아도 그것을 결단치를못흔는 성품이되여셔 오날들이디경이 되엿

스니 정말나는 당신에게 뵈을낫이업소 그런성각을 흘씨마다 너몸보다 당신
 의몸을 먼저근심할엿소 아마날로향여셔 모든 논쳐하고 곧논흔일을 당할면셔
 도 우리가 만날씨마다 당신의걱정은 젖쳐두고 너몸만 녀녀를향여주시고정
 답게 위로를향여주시제마다 나는 마음이 깃게운저 고마운지 엿다가 비하야
 셔 말할수업셔오 그리셔 요스이는 당신을뵈오면 눈물부터 압홀스고 웨그려
 할지 설기만하기예 이상스럽다하고 잇섯드니 과연 이러할일이 성기려고그
 리든지요。 당신에게 나는 항상 낫쳐업셔셔 말을못하고 잇건만은 망신은것듯
 향면 인연이 좃쳐못향여 그러라고하시니 그씨에 너마음은 엿더할것소。 나로
 혼일키 조고마흔 제집으로향여셔 공연히 남의신용만알허바리고 몸만잇져셔
 어디 못된제집하고 관계를 미졌다고 혹시 후회나하시지안는가하고 혼자성각
 흘씨마다 너마음이 엿더할것소」 「그리도 우리가 성리별보다는낫지」 「리별이
 요…… 아이고 나는 그런말은 듯기도실소 성각만하야도 몸소리가나누되 우리
 가 허여지나니 함세사나니 그런말은 우리가 씩에도 생각할지 아니할앗든니
 그 못된놈이 단닌후부터 그런소리가 시작되고 나중에는 심지어 이모양서지되
 앓스니 그놈의원슈는 씨를 가라마셔도 시원치아니할것스소 너가 이원슈를
 어느데나 갑하불가 아이고 분히」 향며 옥향(玉香)이라하흔녀즈는 몸을 별々

떨며 골수에 스뭇치는한을 방긱듯이 요란을부린다. 아지못게라 이와갓치 원망하며 썩지즈며 방긱을 밟는사람은 어디잇는 엇더흐스름이뇨 「그놈도 우습고 못싱긴놈이야」 하며 그남지도 비웃기를 마지아니한다 「못싱길뿐이요 못싱겨도 분수가잇지 동서를 분간치못하는 속익이지요 노는계집이면 모도돈에죽는줄만 알고 놀지요 그런못싱긴 위인이 어디잇소 오면은 실어하는 괴석을 보이것만은 그눈치도 아지도못하고 잠시도 썩나지아니하며 붓터다니면서 나뉘에는 남의조른스이썩지 방긱하니 그런 못된위인은 처음보았셔요 나는엇지미운지 너가 이세상을 썩나갈제 마지막 분푸리로 그놈의 몸스동아리를 할반이라도 썩키여노아셔 아조다시 세상에 출두를 하지못하게 병신을 만다라 노아야갓소」 「그것은 무슨 어리석은말이요」 「네가 어리석은말이아니라 너가 지금죽기로 썩쳐는 하였셔도 그놈의원슈를 감지못할것이 큰원이되겔소」 「지금 그런소리느 소용잇나」 하며 남지는 옥향이라하는 녀의손을썩을어다가 두손으로잔득 썩여붓들고 말을일우지못하며 다만 락슈갓치 썩러지는눈물은 옥향의치마우에 썩러진다 「그썩 당신하고 작별후는 그잇흔날부터 썩러지가아조 조괴의 짐갓치와셔잇고 조곰도 것출 썩나지아니하는구료 나는 아모마음이업서 썩져나을 궁리만하는디 그스름은 점사더 진터를붓치고 귀치안개

구니썩 나중에는 견디다못하여서 썩병을 하고셔 어더로 몸을피하여 갓더니 거괴썩 썩츠와셔 스름을못살게 하는구료 그리고 우리어마니는 썩러가 돈량이나 잇는스름이라고 거괴만 마음이 팔녀서 집에와셔잇스면 별상티썩을듯 하고 나다러는 그스름을 반갑게 티접아니한다 고 일상야단이지요 그리하니썩 썩지는 제가 데일이고 잘나셔 그러할갓치 바로 점잔을 빼고 밥을 가져오느라 술을스오느라 제집갓치 야단요란을 부리는것은 스름의눈으로는 참아볼슈업셔요 그리고 저의집으로는 당초에 갈싱각도 안이히요 그리하고 보니썩나는 아조스조잡힌몸이되어셔 나오려하여도 썩져나을슈도업고 당신하고 약조호일이잇스니썩 감안이 안지잇슬수도업고 엇더케 마음이 조리여지는지 견달수가잇셔야지요 엇더흔썩는 집에서는 말도아니하고 입고잇는티로 썩여나올가하다가도 동기(童妓)로잇는 우리아오동성 화향이 불상하고 어머니썩지라도 나흔아를 치여다보고 계신티 니가업서 진후면 집안식구가 엇저살아가며 지금나흔불과 심오세된화향이도 어린것이 철모로고 오작이나 고성이되라하는마음으로 얼는결단을하지못하고 이싱각 저싱각하고있다 그만느져셔나오지못하고 썩러도 그늘은 서로 두덤썩지 가지안코있다가 너가별말을다하여셔 간신히 썩를녀보녀졌지요. 그리고 그잇흔날은 아츨부터 오후썩지 우리

어머니의 성취지람이 시작되여서 밤낮호든소리를 되호고되호고 하시니 나
 종에는 듯기도실코 티답마디나 호엿드니 말티답호다고 실도록 두드려뭇지
 요. 나는 아모리 두드려맛지아니호여 반이나 송장이되기로 그것을원망호는
 말은 아니지만은 나도평생을 바라고잇는 당신이 계시니싸 너모음사지는 실
 켜버려서 너가기성나와서 흘만콤은 드호엿구료 아모리욕심에는 한이업다고
 호지요만은 너령만 세우려고 남의성각은 조곰도호지안코 부려먹으려고만호
 니 너가돈으로 사서온 괴계도아니요 동두덜신이 안인바에야 그것케불여먹고
 잇셔야 너몸이 살아잇슬수가잇소. 별노이나를위호여달나는 말이안이라 너
 모음만 좀 알아주면 아모리고성이 되드리도 출고잇슬수가잇지요만은 돈만잇
 는놈이면 리든지 도야지든지 불게호고 모져드리라고호니 그것케 천루호질을
 호지안드리도 너사히 술아갈만콤은 너마왕에 버려노앗구료 그런성각은
 조곰도 성각호여주지안코 억제의 소리물호다 말모디나 티답을호면 어미의
 말을 순종치안는다 못성긴년이다호고 일수 두다려만주니 그개.....무.....
 :무슨.....일잇.....마요. 그리호니사 나도와락 골이나셔 다시 참고잇슬
 수도업고 과가막히여서 말도이니호고 썩어나오려고 흘씨에 원슈의김가사 또
 호노구료 자 인제 또 못잡혀서 다라나려니 다라날슈도업고 어머니는 세가쏘

다지게 나를 응콜지게요 시면서 흘씨가거라가거라호니사 김가는 더욱조와서
 씌을고 가자고호기에 노도감안이 성각호여보니사 짐박게를 노셔야 엿더케든
 지 몸을빼치기가 쉬웁겟기에 못익이느체호고 저의집으로 씌을녀긋지요 켈조
 는무슨 산성각이잇섯든게야요 그날은 웬일인지 술을곱보로 드리먹고 억지로
 나를 술을권호기에 말호기실코 사양호기도 실여서 먹을줄도모른술을 주는
 티로 밧아먹느체호고 잇섯지요. 그리노라니사 켈조는 점사술이 취호여서
 호피가 또 나옴디다그려 나는 아모티답도업시 호귀로는듯고 호귀로는홀니고
 잇노라니사 가장 제가무서워셔 말티답을 못호는줄알고 점사피고만장호여셔
 네가나를 그것케티접을호나나호며 너호고너가발셔 상종된지가 사오년이
 나 거의되엿는티 인정으로말호기로 그것케 박티를 흘슈가잇나호며 나종에
 는네가만일 너말을순종치아니호면 너게좀 권디여보라고 호령이 추상호길
 너호도안이쌈고 골이나셔 이것저것보지안코 동의로 방구리로 욱을 드리퍼
 부어주엇드니 나종에는 그못은물건이 무엇이라고 말호호는나호며 네가아모
 리기고날은느조가 잇드리도 돈으로 결박호여노은 네몸이니사 혈수업슬
 나호면서 팔을썩니입디다그려 나는 그말을 드르니사 엿지 호편으로는 우수
 운지아마 당신이 눈이어두어셔 거미줄로 툴의알을 동엿나보오 그리사지요.

그남자는 은근히 상쾌히 녀이는 모양으로 고기를 식덕이다 「그리하고보니
 그스름은 제씨는 티딘이골이 낫던모양이야 야단을할면서 기성년의 버릇으로
 그런 버르장머리업는 소리가 어디있느냐고 너웃기를 흘키여잡고 식으려니
 뜻은 구료나도 그씨는 어연간에 술이 취하였던것이야요 그씨는 아모것도 보
 이는 것이 업고 단지 그놈의 미운마음만 가슴에 가득하여서 그업헤노였던 스
 그릇을 집어서 이놈아 이원수의 사 망흔놈아하고 면판을 향하고 흘뵈니여더지
 니사 맛춤 그것이 양미간에 가 마져서 그릇은 써여지고 얼골에서는 피가 주르
 를흐르느 야단에 집안에 있든 여러스름들이 모다 놀니서 슈션을 부리는 동안에
 슬그머니 나눈 빠져서 나와가지고는 갈곳이 업서서 었더흐아든 스름의 집으로
 갔섯지오. 거기 가서 감안이 생각하니서 셔울로 올느오는 피차는 아직 썩느
 안이 고향스느 머리가 모도 흐르러지고 옷이 모다 찌여졌스니 썰이 스느와셔
 아모리 밤이기로 문밖게를 느설슈가 업서서 혈수업시 그날 밤은 그집에서 자고
 밤식도록 그집 주인마노라 남고 신세타령을 할다가 밤을 식엿지오」 하며 말을
 맛치고 옥향은 치마자락으로 눈물을 씻는다. 남녀 두스름은 혹은 데읍하며 혹
 은 말하느것을 리수일은 마로써서 귀를 기우리고 방안의 이야이를 정신업
 서듯고있다 그손의 기다리던 스름이 과연 었더흐스름인지 그모양을 보고 의심을

풀니라하던 슈일은 할가지로 드러오느녀자를 보고 더욱 여러가지로 의심이 일
 어난다. 었지호연고로 그녀저저지도 얼골빛이 좃치못하고 그남자와 갓흔것
 을보건뒤 피초간에 호모양으로 근심이 싸이여 그러함이로다. 예전부터 전호
 여오는말에 일으기를 범죄(犯罪)하는디는 반듯이 계집이 참여한다하더니
 연 저남자도 저녀저로인연하여 죄를 범할일이 아닌지 모로리로다. 그죄로인
 하여 저남자는 근심하고 그남자의 근심으로 인하여 저녀저는 저렷갓 마음
 우는 것이라하면 저와 갓흔 남녀 두스름은 진실로 서로 사랑하느 스이라 일크
 를지라 아지못게라 저남녀는 무삼연고로 손목을 이끌고 이와갓쳐 저스름산중
 을 초조와느고 그죄를 도망하기 위함인가 그근심을 잊기 위함인가 혹은 피초의
 사랑하느마음을 온전히 하기 위함인가 저스름들은 분명히 부스잔은 아니오저
 녀저가 비록 기성이라하나 노름으로 온길도 아니오 다만 스스스로이 정을 통함이
 안인가 의심한다 슈일은 문득 생각하되 저녀저가 과연 사랑하느 스름을 썩라셔
 이곳저지 도망하여 옴이로다하며 가슴에는 여러가지 감동이 일어난다 슬푸다
 창박게잇서 남의남녀가 봄히가치 썩듯흔정으로서 사랑하느 이야이를 듯고
 잇는슈일은 류년전에 평양티동강변의 예전살을 다시 꾸고있다 세상에 다만 리
 수일호아썩이오 다시 업느줄노 밋고 사랑하면 쇼애는 저남녀와 갓쳐 도망하느

디서지 일을 지못하고 잠간스 동안에 제물을 바라고 눈이어 두어 백년의 아름다
운 인연을 앗가지도 아니하고 바리엿스니 그씨의 뇌 가슴의 한과 오날스 순애
의 후회하는 마음이어! 지금의 순애는 주야로 영화를 밧고 리욕스이에셔 괴거
함은 당치못한 남녀간의 이정을 짜르고즈하리로다 이와갓치 생각후 후 수일
은은근히 그남녀 두스름의 행동을 의심치 안이하고 결백호련의(戀愛)의 완
전호 목적을 달호즈하이니 만일그러하면 그두스름의 저셔호 스정을 알고저
한다 여러히전부터 남녀간련이의 실패호수일은 지금다사 자괴의 신체를 남녀
두스름에게 비유하여본다 나의 신체의 불행호은 얼마나크며 남의 다행호 신체
는 얼마나 만으며 나의 인연은 얼마나 열부며 남의 인연은 얼마나 김호노나
를 사랑호던 스름의 정은 얼마나 앗하스며 사랑호는 정의는 얼마나 김호노나
의련이에는 장이호는 물건이 얼마나 만으며 남의련이에는 시괴호는 물건이
호아도업도다 슬푸다나의련이호는 임의 호터전물건이 되엿도다. 수일은 슬픈회
포를 억제치못하고 진호숨과 짜른탄석으로 다시 저괴방안으로 드러와 저리
를 펴고누엇스나 잠은 일우지못하고 눈을감고 현세의 삶을 썩니 저너인일과
장리의일이 모다 번가라가며 눈압호로 왕되호다. 조요호야반에 귀의들니는
것은 다만 전년방에서 두란거리호는 남녀두스름의 이야기 소리뿐이오 현이엿

다 사시 이엿다호는 말소리는 밤이오이면 들니지도안이호겟거늘 수일의 귀에
는 오히려 번거히 들니더라. 그러치아니호야도 능히 잠을일우지못하고 그남
녀두스름의 리력을알고즈하야 이리성각호며 저리궁구호는디 더욱이 녀즈의
목소리와 남즈의말이 번가라져 남々히 들니호소리에 잠은점々멀니가고 눈은
점々반々하여진다 홀연 그방으로쫓츠 크게목소리가나호로 수일은 놀되여
버키에서 머리를 번쩍들고 드르니녀즈가 데음호이라 그씨에 남즈의목소리는
들니지 안이호고 다만 녀즈호스름이 소리쳐호고 잇슬뿐이니 수일은 썩여잇
던눈이 더욱 청낭호여저며 그녀즈의홀연 큰울음은 무슨연고인지 아지못호여
가슴을 두군거린다. 잠간동안은 울음을 긋치지안이호다가 이윽호여 진정호
더니 전과갓치 또 무슨이야기를 시작호다. 수일은 기우린귀를 오히려 썩우
지안이호고 숨소리도 크게너지안이호여 듯고있다 그러나 저셔호의미는 들니
지은이호다. 수일은 다시 버키를 버히고 도라누어 잠 오기를 창호고있다 조
곰잇더니 그방에이야기도 씌이고 수일도 잠을 간신이 일우엿다가 잇흔늘 아
참이느져셔 잠을썩여문을열고보니 그남녀두스름은 쓸압해셔 건일고있다. 수
일은 그제야 비로소 그남녀두스름의 얼굴을 자셔히보앗더라. 이날은 조요일
이라 아참이지니여 낮후부터 놀너다니호 스름들은 호사름 썩호는 두사탐식스

룸이 노리츠로 나오는고로 그남녀 두스름은 스름의 눈을 피하여 아참부터 영
 창문을닫고 들어안조있다가 오후너덧시부터 가늘게 내려오는초하의비는 옷
 을적시기 덕당하다 유산하려나왔던 스름들은 모다 총총히각々집으로 도라가
 고청량리 절간은 도로적막하여졌는디 저물어가는희가 흐린날에 더욱 저무
 러영창문을 굳이닫고 방은에는 불을해고 수일은 고요히누어있다. 등잔불을
 낮초고 밤이깊도록 아모소리가 업던 건년방에서는 여러사람이 모다 잠이 들
 어 고요한 열두시씩에 일으러 홀연 등불을 도라고 사람의 목소리가는다. 건
 년방에 들어있는 남녀두사람은 일어난안지며 「여보게 술상이리 가져오게」
 「네」 하며 녀는 고요히 대답한다 그목소리가 극히 처량하다 「여보는
 아모리 생각하여도 당신에게 말씀을 다못할것갓히」 「아! 그런말하지말게
 우리가 이지경이되어서 그런생각을 다시할면 역시 우리가 이저지지를못하
 오」 하며 남자는 눈을 감는디 눈귀로는 눈물이 흐른다 「여보 당신반지하고
 니반지하고 우리 밧고아십시오」 「응그리지」 하며 각々 손에 세엿든 반지를
 빼여서금으로 성명석이인 옥향의손에세고 금강석 눈박은반지는 스름희의손
 에 세엿더라동남풍에 느껴오는 비스발은 영창문의 조희를 적시이는데 방안
 에서 문을구지닫고 이야기하는말소리까지 음습하게들니인다 「아 비가되만

이 쏘다지는 모양일제」 「당신은 평일에도 비오는것을보면 조와하시더니 하
 님도 우리의 스름을알으시고 마지막 작별츠로 이비를 주시는보오」 「아못조
 록 이비를 술안주로알고..... 옥향이 마음을 단々히 먹게」 「는는 말서 마음
 을 단단이먹었스니..... 녀며마시오」 「어서 술이느 이리가져오게」 「네」
 옥향이는 산란한마음을 진정하며 저역씩부터 예비하여 노앗던술과 안주를두
 스름스이에 옮겨노으며 「자! 약주잡수시오 이제상에서 너손으로 당신술 따
 라드리기는 지금이 마지막이요」 「피츠에 다맛찬가지지 자네손에 술엇어먹는
 것도 지금마지막일제그려 아못조록 마음을 편안이 먹고 잇게 여보게 옥향이
 그럴리는 만무하지만은 혹시 잘못되어서 실수하는수가 잇드리도 는종이기로
 안이 좇쳐갈니가 만무하니 먼저가셔라도 나는 원망하지말고 기다리고잇게 응
」 옥향이는 목이메여 말을일우지못하고 남자의 무릅에 얼굴을숙이고
 데읍는다 「그리고 만일 즈네가 뒤를 지더리도 나는죽어셔..... 그혼은 즈네
 의 몸을떠나지안이하고 잇슬터이니 아못조록 마음이 변하지말고잇게 응 옥
 향이」 「아이고..... 그..... 그런 소리하지말고 흠씩..... 흠씩 다리고 가서구
 료」 「아무렴 한가지로 가지」 「어서 / 흠씩 손목을붓들고 가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상을 하직츠로 이것을 한잔씩먹세 그만 울지말게 그리고 마음을

단々이 먹어」 「올지안이 흘레야」 「그러면 저구석으로 가서 먹세」 남자는 먼저
 일어서서 녀자의 손을잡으니 옥향은 남자의 손을뺏고 일어나 울며간다 흐구
 석으로 남녀두사람이 모여안졌는데 두얼굴은 모다 눈물에 어리웠다 「잔으로
 술을먹지말고 아조보삭이로 먹세」 「그러면 반식 논아먹읍시다 당신먼저 잡
 슈시고 주시오」 옥향의 별々설니이는 손으로 주전지는 잡았으나 눈에 술잔
 도 차서이보이지안이흐다 남자는 술잔을 손에 들고 마실성까지도안이흐며 눈
 물만 흘리고있다 「여보게 옥향이 저네손에 술어더 머는것도 오날이……마
 지막……」 「여보 나는 오날々까지 고정만하고 제상을보니까 당신이
 하로도 살아보지못하고 기성의일흔을 면치못하고……이티로 죽는것이데
 일원동향오그려」 남자는 대답도 일우지못하고 손에들었던 술그릇을 입에다
 이더니 흐목음에 반이나마시고 「자! 옥향이 이술 마자먹게」 옥향은 술그릇
 을 밧아들었스니 이술이 오날 리별하는 술잔인가 생각함이 스스로 손은떨니
 고 가슴은 문혀진다 「여보시요 니가 지금이런말씀하는것이 도로혀 서어할말
 인듯하지만은 당신은 참나갓흔 못싱긴 계집이라도 잊지안이하고 여러히스동
 안을 향로흐날갓치스랑하여 주시는마음은 진정 엇더케 고마운지몰나소. 네
 가지금까지라도 입으로는 말을하지안이하얏셔도 속마음으로는 엇지고마웠

는지요 그은혜를 갑고심으나 당신아시듯키 우리어머나라 하는니가 오작호오
 그런사담으로 니마음더로 하지못하고 전후에 스름은 뺏치못하고성을 향여가
 면서어나매든지 조흔과화가 잇스면 당신하고 너와가되어서 나들스랑하여쥬
 시든 우혜를 갑푸려하고 그못하고성도 나중에 바라는 마음으로 위로하여가
 며 지녀왔더니 인제는 그도저도 다들녀바리고……공든답이 문혀지라하
 든이 그말도 다헛말이오 인제는 당신이나 너는 다긋치죽어서 흙이될터이니
 석다시 우리가 이렷케 맛노볼수는 업슬터이니 니마음이 그러하였든 줄이는
 알아쥬시오」 남자는 눈물을 씨으며 별별설니여 노오는말이라 「글세 그런소
 리는 하지말게 믿음만 좃치못하니……그런말을드르면 황현으로가는길이
 점점 방허가되네 우리가 이렷케 흙씨죽으면 이성에서 흙씨 스는것이는 저성
 에서 흙씨스는것이나 다 일반이지 그런슬픈성자는 다사하지말고 우리가 깃
 분 믿음으로긋치죽세」 「니야 깃버하고말고요 이렷케 죽는죽임은 우셔가며
 라도 죽겟소 나도 남기신술을 먹겟쇼」 하며 흐임에 마시여바리고 남자의압
 흐로 잔을녀여밀며 「당신이 나흐잔 설아쥬시요」 설은스름의손도 떨리며
 밧는스름의손도 떨리고 엇질어면 다사치며 다사치면 업치여진다 남자는 옥
 향의 귀에 입을다이고 흐손으로는 옥향의 허리를설어 안았는데 나작히나오

는목 소리로「옥향이 믿음을 단단히차리게」「글세 녀너모시요 나는」「그러면
 인제 먹어보세」「오리도룩 이리하고잇스면 무엇하오 얼핏죽어 바랍시다」그
 남자는 가방을 열더니 조고마흔 조희죽머니 흘기를 씩니여놓는다 그속에쓰
 이여잇는 가로약은 이남녀 두사람의 목숨을 싣는물건이라。 옥향은 종자두
 킨나라니 버리어노앗는디 눈과코치 흰가로를 두종자에 난호앗더라「자！
 옥향이 아잔을잡게 자네잔에는 니가싸라주고 니잔에는 자네가싸라주게……」
 「네 그림시다」이씨에 싣다저느리든 비는 키이고 첩항에서 뚝々듯는 락수소
 래만들니인다 그남자는 주전자를 들어 혼그릇에술을 가득이부어노오미 옥향
 이는 두손을합장하고 간신히 입밖게오는 목소래로「님우아미라불 느무아
 미라불」옥향이도 남자의압헤잇는 술잔에 벌벌떨니는 손으로 술을치며 입
 속으로는 녀불소래를 굶치지아니한다。 이씨의 녀너 두사람의 맑은정신은 거
 의 반이노살아지고 각々손에는 술잔을들어바야흐로 입에다이하호흐음에 홀
 연 뱀뱀(百雷)가 일시에 느리여지는듯 호소래에 남녀는 혼비백산하여 손에
 들엇던 술잔은떨러져 방안에 엎치여지는디 비로소 정신을차리여보니 등잔불
 아래에 엷더흔 남자의 모양이(낮)나있다「당신네는 엷더흔싱각으로 이와크
 처마지막으로 가는짓을하오」그남자는 비로소 맑은정신이도라오며 놀는은

마음을 진정하고「아 로형은 누구시요」「아마 로형도 뉘얼골을 아시겟구료
 저방에와서 묵고잇는스름이요 그러는 남의방을 통기도업시 이렷케섞여 드러
 와서 티단이 실례가 되얏소만은 조곰만 느젓드면 큰일이날번하엿구료 티체
 로형네는 무삼일로 이러흔 짓을하려고 그리시요」창연흔 괴식으로 남자는고
 킨를 드리우고 들지아니하는 옥향은 반이는 몸을스나회에 그림자에 가리우
 고 안자있다 수일은 두사람의동정을 자로살피며 티답는오기를 기다린다「들
 론여기에 티항여서는 철수업는 사정이잇서서 그러흔일이니서 사소흔일은
 다 말씀아니하드래도 내가 티강은 짐작하겟스는 다만무슨사려으로 두분이흠
 뵈즈쳐하려는지 그말씀만하녀주시요」……「두분이 부부가되어
 서살녀고하여도 마음티로되지못하니서 차라리 흠씩죽는것이 낫다하는말씀
 이요」그남자는 티답은업고 간신히 고개를 싣덕인다「아 그렷타하는말씀이
 요그러 그러면 엷지하여서 부부가되려하여도 되지못하단말씀이요」그남자는
 여시디답지안이한다「그리유를 말씀하여주시면 내힘으로 능히될만흔일은서
 로의론것하여 도아드릴수도 잇슬가하고 못는말씀이니 좌우간에 티답하여주
 시요 즈셔흔말씀을 들은후에 내힘으로도 엷지할수가업고 과연로형네의사정
 이 엷지할수업시죽어야만 할것갓흐면 내역역지로 말니지안이하고 오히려도